

大韓醫療氣功學會

대한의리기공학회지  
J.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Vol.16. No.1. 2016.12.31

## 2008년 이후 한국에서 발표된 기공관련 연구 동향 분석

이재흥\* · 김지희\* · 정재훈\* · 조민군\* · 이은미\*

\* : 대한의리기공학회

### ABSTRACT

#### Research Trends on *Qigong*-related Studies in Korea since 2008

Jae Hueng Lee, Ji Hee Kim , Jae Hun Jung,  
Min Gun Jo, Eun Mi Lee

**Object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rends of "*Qigong*"-related study since 2008 and to help guide the research direction of *Qigong* study.

**Methods** : The computerized Korean database was searched from January 2008 until September 2016. The search terms used were '*Qi*', '*Qigong*', '*Doin*', 'Meditation', 'bioenergy', 'training', 'life nurturing' and random or Korean language terms.

· Received : 16 November 2016 · Revised : 26 November 2016 · Accepted : 15 December 2016

Correspondence to : 이은미(Eun Mi Lee)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 466-11 하성한방병원

Tel. 031-999-6666 Fax. 031-999-6600 E-mail : lemaum@hanmail.net

**Results :**

1. A total of 140,914 studies were searched in this study. A total of 2,147 studies were finally selected as *Qigong*-related studies.
2. The average number of *Qigong*-related studies published in Korea since 2008 is 252.6 per year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studies published by year
3. Results according to the subject categories, 805 cases were in the humanities and 2 cases were in the agriculture & maritime field.
4. Results according to the middle subject categories, philosophy was the largest with 280 studies.
5. As a result of *Qigong* categories showed that meditation was the highest with 1,043 (48.58%) not including duplication.
6. As a result of research method, the most frequent method was Analysis research with 1,138(53.00%) cases and the experimental research was the least with 118(5.50%) cases.
7. When the authors were investigated, the result was the most in 35 cases by Kim Byung-chaе.
8. The journal that published the most *Qigong*-related studies was "J. of The Studies of Taoism and Culture" (52), and Dongguk University (75) had the largest number of *Qigong*-related studies.

**Conclusions :**

1. Since 2008,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yearly and yearly the number of *Qigong*-related studies.
2. Since 2008, *Qigong*-related studies have been the most successful in the field of humanities, but it has been regularly published in various other field.
3. Since 2008, *Qigong*-related studies has shown a remarkable decline in category on External *Qigong* Therapy(外氣發功) and Science of *Qi*(氣科學). However, category on *Nae-Dan*(內丹), meditation, *Do-In*(導引) has continued steadily every year. And did not show a tendency to increase or decrease.

**\*Keyword :** *Gi-Gong*, *Qigong*, systematic review, Korean

## I. 緒論

기공학에 관련된 체계적 분석 논문은 2008년 Han<sup>1)</sup>이 처음으로 발표하였다(이하 『2008년 Han의 논문』이라 지칭함). 이에 따르면 1999년을 정점으로 2000년대는 기공학 관련 논문들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였다. 기공학 관련 논문들이 정점을 이루었던 1990년대는 “기를 아십니까?”라는 유행어로 대표되듯이 기 열풍이 불던 시기였다. 이러한 기 열풍의 분위기는 당연히 학계에도 영향을 미쳐 1990년대에 학문적 연구가 가장 절정을 이루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 하지만 열풍 뒤에는 반드시 거품이 빠지고, 조정을 거치기 마련이니, 기공학 연구도 이러한 과정 때문에 2000년대에 들어서는 줄어들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때마침, 1999년 法輪功 사태로 중국의 기공이 커다란 위기와 위축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기공학이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학문적 특징을 고려하면 한국 기공 역시 이 영향 아래 상당히 위축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로 기공학 관련 논문들이 점차로 줄어들었을 것이라 분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기공학은 중국과 달리 커다란 탄압과 억압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비록 중국의 영향을 다소 받았다고 하나 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조정을 거치면서 연착륙을 하는 과정이라 사료되어 이후에 기공학은 거품이 빠진 탄탄한 기반 아래 좀 더 내실 있고 다양하고 풍부하게 발전하고 있으리라고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기대감에 『2008년 Han의 논문』에서 Han이 처음 기공학 관련 동향분석을 한 이후 8년이 지난 2016년의 시점에서 기공학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당초 본 논문을 기획하고 계획할 때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2008년 이전과 똑같은 형식선상에서 2008년 이후 현재까지를 비교 분석하려 하였으나, 기공관련 연구들을 조사할 때 무엇보다도 기공 관련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연구 동향의 양적 분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기공 관련성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고 규정하여 기공 관련 논문 선정의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연구 방법은 국내 주요 논문 검색사이트 4곳을 선정하여 『2008년 Han의 논문』에서 사용하였던 것과 같은 검색어를 사용하여 검색하였고, 검색된 논문들을 본 논문에서 마련한 기공 관련 논문 선정의 기준에 따라 추출, 선정하고 정리하여 최근의 기공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8년 이전과 같은 형식선상에서 비교 분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1970년부터 현재까지의 개략적인 연구동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1) Chang Hyun Han, Sang Nam Lee, Young Kyu Kwon, Sun Mi Choi. Research Trends on *Qigong* in the Korean Journal.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8;22(4):954-959.

## II. 대상 및 방법

### 1. 연구 대상

#### 1) 연구 대상 논문 선정 과정

2008년 이후 기공 관련 연구의 체계적 분석(Systematic Review)을 위한 연구 대상 논문의 선정은 다음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었다.

##### (1) 논문 검색엔진

국내의 주요 학술 논문 검색사이트인 국회도서관(www.nanet.go.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4u.net), 한국학술정보(kiss.kstudy.com),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mbase.medic.or.kr)의 검색 엔진을 사용하였다(Table 1). 이하 각각 약어로 NAL, RISS, KISS, KMB로 사용하였다.

Table 1. A List of Database Searched in The Course of This Review.

Title	Publisher	Abbr.	URL
National Assembly Library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the Republic of Korea	NAL	www.nanet.go.kr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RISS	www.riss4u.net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한국학술정보(주)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KISS	kiss.kstudy.com
Korean Medical Database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Med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Korea)	KMB	kmbase.medic.or.kr

##### (2) 검색 대상 및 기간

『2008년 Han의 논문』이 2008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검색 대상은 2008년부터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등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검색 기간은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하였다.

##### (3) 검색어

위의 검색엔진에서 "기, 기공, 도인, 수련, 양생, 생체에너지"를 검색어로 하여 검색하였다.

#### (4) 검색 논문 정리 및 선정 과정

검색된 논문의 검색엔진, 검색어, 논문명, 저자, 발행물, 발행처, 발행년도, 키워드 등의 정보를 엑셀파일(\*.xlsx)로 작성하여 정리하였다. 정리된 자료를 본 논문에서 마련한 기공 관련 논문 선정의 기준에 맞추어 일일이 제목과, 키워드, 초록, 목차 등을 각각 확인하여 1단계와 2단계,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선정을 완료하였다.

## 2) 기공관련 연구 대상 논문 선정 규정 및 기준과 단계

### (1) 기공의 정의와 범주

기공 관련이란 기공의 범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기공의 범주 또한 기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957년 劉貴珍(1920~ 1983)의 『氣功療法實踐』에서 氣功이 各門 各派의 吐納呼吸·導引·靜坐·內功·煉丹法 등을 총괄하는 명칭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sup>2)</sup> 국제 공용어로 확립 되었는데, 劉貴珍은 이 『氣功療法實踐』에서 “氣라고 하는 文字에는 呼吸의 의미가 있으며 功이라고 하는 文字에는 呼吸이나 姿勢를 끊임없이 調節·修鍊한다, 다시 말해 공을 들인다, 노력과 정성을 꾸준히 들인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이와 같은 氣功의 방법을 醫學的으로 정리 연구하여 질병의 治療나 豫防에 應用함과 동시에 舊代의 미신적인 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거듭되어 왔으므로 이런 의미에서 氣功療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sup>3)</sup>라고 하였고, 이동현은 “氣功은 姿勢와 呼吸의 調節 뿐만이 아니라, 意識의 調節·鍛鍊을 통해 氣를 길러 보충하고 氣를 원활하게 疏通시킴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며, 또한 질병을 치료하려는 心身鍛鍊法”<sup>4)</sup>이라고 하였고, Kim<sup>5)</sup>은 이러한 여러 문헌을 종합해 “氣功은 外鍊筋骨皮하고 內鍊精氣神하는 일종의 動靜을 결합한 自我心身鍛鍊法으로<sup>6)</sup> 몸과 숨과 마음이 一如하게 되어 無心히 天命에 應하고자 하는 功夫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Kim은 기공의 범주를 "氣를 우주 만물의 實在라고 보았을 때 人間의 精神活動도 氣에 의한 것이며 形身作用도 氣에 의한 것이므로 氣가 작용하는 범위는 心身兩面을 포괄한다. 따라서 廣의의 氣概念으로 보았을 때 儒家·佛家·道家·카톨릭·YOGA·武術家·醫家 등 各門 各派의 修行法들이 모두 氣功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예전에

2) 李東鉉. 健康氣功. 서울:精神世界社. 1990:348. p.48.

3) 林厚省. 中國氣功. 서울:保健新聞社, 1987. p.20.

4) 李東鉉. op. cit., p.27.

5) Kim Woo Ho, Hong Won Sik. A Documentation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hi-Kung-Hak. J.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1996;1:13-64. pp.21-24.

6) 陶熊主編. 氣功精選續篇. 北京 :人民體育出版社. 1985. p.354.

는 이러한 修行법들이 각 門派에 따라 서로 달리 이름지어졌다. 예컨대 儒家에서는 靜功 또는 靜坐功·存心養性法 등으로, 佛家에서는 禪·坐禪·參禪·明心見性法 등으로, 道家에서는 煉丹法·性命雙修法·修心煉性法 등으로, 카톨릭에서는 靜坐冥想, YOGA에서는 觀法·內觀法, 武術家에서는 內功, 醫家에서는 養生法·導引按蹻·導引行氣 등으로 불리웠으나,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모두 氣功의 前身이라 할 수 있다."라고<sup>7)</sup> 하였다.

## (2) 기공관련 연구 논문의 규정

이와 같은 기공의 범주를 토대로 기공 관련 연구 논문을 규정하면,

- ① 기공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氣에 대한 각종 연구를 기공 관련 논문으로 규정한다.
- ② 각문 각과의 수련법 즉, 정좌법, 존심양성법, 참선법, 명심견성, 성명쌍수, 내단법, 내공법, 도인법, 양생법, 도인안교법, 행기법, 호흡법, 명상 등에 대한 각종 연구를 기공 관련 연구 논문으로 규정한다.
- ③ 각문 각과의 수련법 중 심신수련법이라는 기공의 범주와는 일맥상통하나 서양의 가톨릭, 기독교의 수양법, 인도의 요가수련법 등은 그 기원의 차이가 크고, 氣에 대한 관념과 개념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공 관련 연구 논문에서 제외한다.
- ④ 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등의 현대 무술은 비록 그 기원이 기공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미 현대적 의미의 스포츠로서 개념이 정립되었기에 기공 관련 연구 논문에서 제외한다.
- ⑤ ③번과 ④번에 제외되는 연구에 해당되어도 ①번, ②번과 융복합된 연구 논문은 기공관련 연구 논문으로 규정한다.

## (3) 기공관련 연구 논문 선정 기준 및 단계

이상의 기공관련 연구 논문의 규정을 토대로 검색된 논문의 선정 기준 및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 1단계 : 키워드 기준 선정 단계 >

가. 논문 제목 또는 키워드에 포함된 “기”, “기공”, “도인”, “양생”이라는 단어가 명백히 “氣”, “氣功”, “導引”, “養生”을 뜻하는 논문은 기공관련 연구 논문으로 선정한다.

나. 논문 제목 또는 키워드에 “기학(氣學)”, “기철학(氣哲學)”, “이기론(理氣論)”, “주기론(主氣論)”, “외기발공(外氣發功)”, “선도(仙道)”, “단전(丹田)”, “내단(內

---

7) Kim Woo Ho. op. cit., p.17.

丹), “단학(丹學), “좌선(坐禪), “조식(調息), “주천(周天), “미병(未病)” “대체의학”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기공관련 논문으로 선정한다.

다. 논문 제목 또는 키워드에 “명상(冥想), “마음챙김”, “관심법(觀法法), “지관법(止觀法), “뇌호흡”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기공관련 논문으로 선정한다.

라. 논문 제목 또는 키워드에 “태극권(太極拳), “타이치”, “팔단금(八段錦), “역근경(易筋經), “육자결(六字訣), “오금희(五禽戲), “참장공(站樁功)”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기공관련 논문으로 선정한다.

### < 2단계 : 내용 기준 선정 단계 >

마. 가-라에 선정되었지만 초록, 목차들을 살펴보았을 때 기공 관련 용어들이 단순한 언급에 그친다거나 특정 종교의 홍보, 포교 등의 종교적 목적과 성향이 짝은 내용의 논문 등은 제외한다.

바. 논문 제목 또는 키워드에 “마왕퇴(馬王堆), “행기옥패명(行氣玉佩銘), “참동계(參同契), “포박자(抱朴子), “양성연명록(養性延命錄), “황정경(黃庭經), “제병원후론(諸病源候論), “비급천금요방(備急千金要方), “준생팔전(遵生八牋), “활인심방(活人心方), “용호비결(龍虎秘訣), “삼일신고(三一神誥)”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목차, 초록 등을 살펴보고 가-라에 언급된 용어가 핵심적인 주제일 경우 기공관련 논문으로 선정한다.

사. 논문 제목 또는 키워드에 “갈홍(葛洪), “손사막(孫思邈), “김시습(金時習), “서경덕(徐敬德), “퇴계 이황(退溪 李滉), “정렴(鄭謙), “곽재우(郭再祐), “최한기(崔漢綺)”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목차, 초록 등을 살펴보고 가-라에 언급된 용어가 핵심적인 주제일 경우 기공관련 논문으로 선정한다.

아. 논문 제목 또는 키워드에 “생체에너지”란 단어가 포함되면, 목차, 초록 등을 살펴보고 “생체에너지”의 개념이 “氣”와 같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공관련 논문으로 선정한다.

### < 3단계 : 초록 형태, 중복 제거 단계 >

자. 가~아에 선정된 논문 중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에서 1-2페이지의 분량의 초록의 형태로 발표된 자료나 보고서, 잡지 기사 등은 제외한다.

차. 가~아에 선정된 논문 중 제목, 저자, 초록, 목차 등을 살펴보았을 때 중복되었다고 판단되는 논문 중, 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이 있을 경우 학위 논문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중복논문으로 제외시킨다.

카. 가~아에 선정된 논문 중 제목, 저자, 초록, 목차 등을 살펴보았을 때 중복되었다고 판단되는 논문 중, 발표 연도가 다른 경우는 연도가 앞선 논문을 선정한다.

## 2. 연구방법

### 1) 연도별 분류

선정된 자료를 연도별로 분류하였다. 2016년은 자료 검색일시가 2016년 6월~9월로 전체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표시하였다.

### 2) 연구 주제별 분류

선정된 자료를 연구 주제별로 분류하였는데, 학술논문의 경우 발행지의 KCI(한국학술지 인용색인)에 분류<sup>8)</sup>를 따랐고, KCI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발행처를 중심으로 임의 파악했으며, 학위 논문의 경우 저자의 전공을 중심으로 KCI의 분류 구분(Table 2 참조)에 따라 임의 파악했다.

Table 2. Subject Categories of the KCI(Korea Citation Index).

Main	Middle		
Humanities 인문학	Lexicography 사전학	History 역사학	Philosophy 철학
	Religion 종교학	Christian Theology 기독교신학	Catholic Theology 가톨릭신학
	Confucianism 유교학	Buddhism 불교학	Linguistics 언어학
	Literature 문학	Korean/Korean Literature 한국어와문학	Chinese/Chinese Literature 중국어와문학
	Japanese/Japanese Literature 일본어와문학	Misc. Asian Languages 기타동양어문학	English/English Literature 영어와문학
	French/French Literature 프랑스어와문학	German/German Literature 독일어와문학	Spanish/Spanish Literature 스페인어와문학
	Russian/Russian Literature 러시아어와문학	Classics/ Medieval & Renaissance Studies 서양고전어와문학	Interpretation & Translation 통역번역학
	Misc. Humanities 기타인문학		
Social Science 사회과학	Social Science (General) 사회과학일반	International Relation 정치외교학	Economy 경제학
	Agricultural	Business	Accounting

8) <https://www.kci.go.kr/kciportal/ci/clasSearch/ciSereClasList.kci>



	Economics 농업경제학	Administration 경영학	회계학
	Trade 무역학	Sociology 사회학	Social Service 사회복지학
	Regional Studies 지역학	Anthropology 인류학	Education 교육학
	Law 법학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	Public Policy 정책학
	Geography 지리학	Regional Development 지역개발	Tourism 관광학
	Mass Communication 신문방송학	Military science 군사학	Psychology 심리과학
	Misc. Social Sciences 기타사회과학		
Natural Sciences 자연과학	Natural Sciences (General) 자연과학일반	Mathematics 수학	Statistics 통계학
	Physics 물리학	Astronomy 천문학	Chemistry 화학
	Biology 생물학	Earth Science 지구과학	Geology 지질학
	Atmospheric Sciences 대기과학	Oceanography 해양학	Life Science 생활과학
	Misc. Natural Sciences 기타자연과학		
Engineering 공학	Engineering (General) 공학일반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	Automobile Engineering 자동차공학
	Aerospace Engineering 항공우주공학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	Polymer Engineering 고분자공학
	Biological Engineering 생물공학	Control & Instrumental Engineering 제어계측공학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공학
	Material Engineering 재료공학	Environmental Engineering 환경공학	Electrical/ Informational Engineering

			전자/정보통신공학
	Computer Engineering 컴퓨터학	Civil Engineering 토목공학	Architectural Engineering 건축공학
	Industrial Engineering 산업공학	Safety Engineering 안전공학	Nuclear Engineering 원자력공학
	Marine Engineering 조선공학	Ocean Engineering 해양공학	Textile Engineering 섬유공학
	Resource Engineering 자원공학	Metal Engineering 금속공학	Transportation Engineering 교통공학
	Biomedical Engineering 의공학	Agricultural Engineering 농공학	Misc. Engineering 기타공학
Medicine Field 의약학	Medicine(General) 의학일반	Anatomy 해부학	Physiology 생리학
	Biochemistry 생화학	Pathology 병리학	Pharmacology 약리학
	Microbiology 미생물학	Preventive Medicine 예방의학	Immunology 면역학
	Internal Medicine 내과학	Surgical Medicine (General) 일반외과학	Pediatric Medicine 소아과학
	OB/GYN 산부인과학	Psychology 정신과학	Orthopedic Medicine 정형외과학
	Neurology 신경외과학	Cardiothoracic Surgery 흉부외과학	Cosmetic Surgery 성형외과학
	Ophthalmology 안과학	Otolaryngology 이비인후과학	Dermatology 피부과학
	Urology 비뇨기과학	Radiology 방사선과학	Anesthesiology 마취과학
	Rehabilitative Medicine 재활의학	Physical Therapy 물리치료학	Public, Environmental & Occupational Health / Rehabilitation 작업치료학
	Neuroscience 신경과학	Clinical Pathology 임상병리학	Family Medicine 가정의학
	Emergency medicine 응급의학	Dentistry 치의학	Veterinary Medicine, Veterinary Science 수의학
	Nursing	Herbal Medicine	Pharmacy

	간호학 Misc. Medicine 기타의약학	한의학	약학
Agriculture & Maritime Field 농수해양학	Agriculture 농학	Forestry 임학	Landscape Architecture 조경학
	Animal Husbandry 축산학	Fishery 수산학	Marine Transportation 해상운송학
	Food Science 식품과학		
Arts&Sports Field 예술학	Arts (General) 예술일반	Music 음악학	Fine Arts 미술
	Design 디자인	Fashion 의상	Cosmetics 미용
	Theatre 연극	Film 영화	Sports 체육
	Dance 무용	Misc. Arts & Sports 기타예술체육	
Interdisciplinary 복합학	Multidisciplinary Sciences 과학기술학	Technological Policy 기술정책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문헌정보학
	Psychological Science 심리과학	Women's Studies 여성학	Cognitive Science 인지과학
	Brain Science 뇌과학	Emotion and Sensibility 감성과학	Interdisciplinary Research 학제간연구

### 3) 기공 분야별 분류

기공의 분야별 분류는 기공의 개념을 협의적으로 해석할 때, 調息·辟穀·導引·房中·服餌의 5種으로 大別되지만<sup>9)</sup>, 본 논문에서는 기공의 개념을 좀 더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기와 관련된 공부, 연구라는 사전적 개념에 충실하였고 氣가 작용하는 범위를 心身兩面에 모두 적용시키는 포괄적 개념의 기공의 범주 또는 분야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기공의 분야를 9개 항목으로 세분하였고, 이에 따라 분류하였다. 또한 여러 분야가 중복되어 연구될 경우 중복 처리하여 분류하였다(Table 3).

9) 이능화, 이종은 역. 朝鮮道敎史. 서울:普成文化社. 1992:512. p.10, 207, 440, 452.

10) 朴炳洙. 朝鮮時代의 道敎養生思想에 관한 研究.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Korea. 1992:115. p.6, 61, 62.

Table 3. Categories of *Qigong*.

Categories	contents
Philosophy of Qi PhQ. (기철학)	기의 개념, 구분, 분류, 역사, 기철학, 기의 운행, 기와 관련된 문학, 예술, 문화적 활용 등에 대한 연구
Science of Qi SQ. (기과학)	기 또는 생체에너지의 과학적 규명, 또는 과학적 활용 등에 대한 연구.
General <i>QiGong</i> GQG. (기공일반)	기공의 개념, 분류, 역사 등의 기공에 대한 일반적 사항과 기공의 여러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연구.
Life Nurturing L.N. (양생)	양생, 수양, 장수, 기거양생, 정신양생, 음식 양생, 벽곡, 미병 등, 양생이란 용어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연구.
<i>Do-In</i> D.I. (도인)	태극권, 역근경, 오금희, 경기공, 무술, 체조 등 기공의 분류상 도인법에 속할 수 있는 공법들의 개념, 역사, 방법, 활용 등의 연구
External Qigong Therapy EQT.(외기발공)	외기발공에 대한 개념, 역사, 생체 실험, 임상 실험, 조사, 분석, 방법, 활용 등의 연구.
<i>Nae-Dan</i> ND. (내단)	내단법, 호흡법, 단학, 주천, 뇌호흡, 특이공능, 신선, 선도 등 기공의 분류상 조식법, 복이법 등에 해당하는 공법 또는 사상의 개념, 역사, 활용 등에 대한 연구
Taoist Sexual Practices TSP. (방중)	방중술, 성생활 등 기공의 분야에서 방중에 해당하는 내용의 개념, 역사, 방법, 활용 등에 대한 연구
Meditation Mdt. (명상)	참선법, 명상법, 호흡명상법, 지관명상법, 마음챙김 등의 개념, 역사, 방법, 활용 등에 대한 연구.

### 3) 연구 유형별 분류

연구유형분류는 Lee<sup>11)</sup>가 사용한 Thomas & Nelson(1996) 연구유형을 그대로 사용하여 실험연구, 분석연구, 기술연구, 질적 연구로 구분하였다(Table 5). 이지관은 “실험연구는 변인을 설정하고 조작, 통제함으로써 나타나는 실험이 이루어지는 연구를 말하며, 분석연구는 역사적, 철학적, 문헌분석, 메타연구를 포함하고, 기술연구는 주로 설문지를 이용하는 질문지법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면접법, 특정사례분석, 상관연구를 포함하며, 질적연구는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포함한다”라고 하였다.

11) Lee Ji-Kw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for the Scientification of *Qigong* Exercise.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Korea. 2006:47. p.29.

Table 5. Classification of the Research method Type.

Classification	method
Descriptive Research 기술연구	Surveys(Questionnaires, Personal Interviews), Case Research, Observational Research, Correlational Research, Developmental Research, etc. 조사연구(질문지법, 면접법), 사례 연구, 관측연구, 상관연구, 발달연구 등
Analysis Research 분석연구	Sociohistorical Research, Philosophical Research, Literature Analysis Research, Meta-Analysis, etc. 사회역사적연구, 철학적 연구, 문헌분석연구, 메타분석연구 등
Experimental Research 실험연구	Pre-Experimental Research, True-Experimental Research, Quasi-Experimental Research, etc. 선형실험설계, 진형실험설계 및 유사실험설계 등
Qualitative Research 질적연구	Life History Research, Narrative Analysis Research, Phenomenological Research, Grounded theory Research, Ethnographic Research, Case Research, etc. 생애사 연구,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연구, 문화기술지연구, 사례연구 등

### Ⅲ. 결과

#### 1. 기공관련 연구 논문 선정 결과

##### 1) 검색 결과

4곳의 국내 논문 검색기관에서 2008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기”, “기공”, “도인”, “명상”, “생체에너지”, “수련”, “양생”으로 검색한 검색논문 수는 총 140,914 건이었다. 이 중 “기”로 검색 된 건이 89,872건(89.87%)으로 가장 많았고, “생체에너지”로 검색한 건이 1,082건(0.77%)으로 가장 적었다. 검색엔진별로는 4만2천여건으로 RISS가 가장 많았다(Table 6).

Table 6. Number of Search Studies.

Search Engine	Qi 기	Qigong 기공	Doin 도인	Meditation 명상	Bioenergy 생체에너지	training 수련	life nurturing 양생	Total
NAL	10,844	9,912	12,738	1,641	36	3,105	1,923	40,199
Thesis	4,910	6,545	7,684	899	27	1,965	1,267	23,297
J. Paper	5,934	3,367	5,054	742	9	1,140	656	16,902
RISS	22,107	4,478	5,109	2,466	1,030	4,995	1,872	42,057
Thesis	11,794	2,388	3,134	1,196	793	2,646	791	22,742
J. Paper	10,313	2,090	1,975	1,270	237	2,349	1,081	19,315
KISS	34,803	176	69	299	12	577	109	36,045
KMB	22,118	81	17	-	4	123	270	22,613
Total	<b>89,872</b>	14,647	17,933	4,406	<b>1,082</b>	8,800	4,174	140,914
	<b>63.78%</b>	10.39%	12.73%	3.13%	<b>0.77%</b>	6.24%	2.96%	100.00%

NAL : National Assembly Library  
 RISS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MB : Korean Medical Database  
 J. paper : Journal Paper

## 2) 논문 선정 결과

### (1) 1-2단계 결과

본 논문에서 마련한 기공관련 연구 선정 기준 1단계와 2단계의 과정을 통해 선정된 논문은 총 4,206건이었다. 이중 가장 많이 선정된 연구는 ‘명상’으로 검색된 연구로 2,065건(49.10%)이고 절반정도를 차지하였다(Table 7).

Table 7. Number of Qigong-related Studies selected in step 1-2.

Search Engine	Qi 기	Qigong 기공	Doin 도인	Meditation 명상	Bioenergy 생체에너지	training 수련	life nurturing 양생	Total
NAL	216	135	91	880	14	138	150	1,624
RISS	470	143	45	929	16	189	143	1,935
KISS	73	33	7	256	5	56	78	508
KMB	63	11	1		11	7	46	139
Total	822	322	144	2,065	46	390	417	4,206
	19.54%	7.66%	3.42%	<b>49.10%</b>	<b>1.09%</b>	9.27%	9.91%	100.00%

NAL : National Assembly Library  
 RISS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MB : Korean Medical Database

### (2) 3단계 최종 선정 결과

1-2단계에서 선정된 연구들에서 3단계 과정 중 초록 형태나 내용상 기공과 연관성이

적은 논문 399건을 제거한 결과 3,807건인 선정되었고(Table 8), 이중에서 또 중복 1,660건을 제거하여 최종 선정된 연구들은 총 2,147건이다(Table 9).

Table 8. Number of *Qigong*-related Studies selected in Final step 3(1).

Search Engine	<i>Qi</i> 기	<i>Qigong</i> 기공	<i>Doin</i> 도인	Meditation 명상	Bioenergy 생체에너지	training 수련	life nurturing 양생	Total
Selected								
NAL	191	131	66	778	12	124	142	1,444
RISS	442	138	41	855	16	172	138	1,802
KISS	61	31	7	227	4	40	75	445
KMB	48	10	1		4	7	46	116
Total	742	310	115	1,860	36	343	401	3,807
	19.49%	8.14%	3.02%	48.86%	0.95%	9.01%	10.53%	100.00%
Deleted								
NAL	25	4	25	102	2	14	8	180
RISS	28	5	4	74	0	17	5	133
KISS	12	2	0	29	1	16	3	63
KMB	15	1	0	0	7	0	0	23
Total	80	12	29	205	10	47	16	399
	20.05%	3.01%	7.27%	51.38%	2.51%	11.78%	4.01%	100.00%

NAL : National Assembly Library

RISS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MB : Korean Medical Database

Table 9. Number of *Qigong*-related Studies selected in Final step 3(2).

Search Engine	<i>Qi</i> 기	<i>Qigong</i> 기공	<i>Doin</i> 도인	Meditation 명상	Bioenergy 생체에너지	training 수련	life nurturing 양생	Total
Selected								
NAL	144	53	47	347	6	60	76	733
D. Thesis	26	12	3	50	1	9	4	105
M. Thesis	31	18	10	112	3	21	16	211
J. paper	87	23	34	185	2	30	56	417
RISS	317	101	27	659	12	139	88	1,343
D. Thesis	27	8	3	56	4	13	1	112
M. Thesis	73	23	3	245	2	36	13	395
J. Paper	217	70	21	358	6	90	74	836
KISS	11	5	-	24	2	3	1	46
KMB	16	1	-	-	2	2	4	25
Total	488	160	74	1,030	22	204	169	2,147
	22.73%	7.45%	3.45%	47.97%	1.02%	9.50%	7.87%	100.00%
Deleted								
NAL	47	78	19	431	6	64	66	711
D. Thesis	9	6	2	36	1	7		61

M. Thesis	13	21	5	188		26	11	264
J. Paper	25	51	12	207	5	31	55	386
RISS	<b>125</b>	<b>37</b>	<b>14</b>	<b>196</b>	<b>4</b>	<b>33</b>	<b>50</b>	<b>459</b>
D. Thesis	27	7	2	27		4	2	69
M. Thesis	27	8	4	66	1	18	6	130
J. Paper	71	22	8	103	3	11	42	260
KISS	50	26	7	203	2	37	74	399
KMB	32	9	1		2	5	42	91
Total	<b>254</b>	<b>150</b>	<b>41</b>	<b>830</b>	<b>14</b>	<b>139</b>	<b>232</b>	<b>1,660</b>
	15.30%	9.04%	2.47%	<b>50.00%</b>	<b>0.84%</b>	8.37%	13.98%	100.00%

NAL : National Assembly Library

RISS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MB : Korean Medical Database

D. Thesis : Doctorial Thesis , M. Thesis : Master's Thesis, J. Paper : Journal Paper

## 2. 선정된 연구 논문의 현황

### 1) 연도별 분류

2008년 이후 한국에서 발표된 기공관련 연구 논문을 발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252.6건으로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 중 2010년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8년 227건으로 가장 적었다. 2016년은 상반기(2016년 8월31일)까지만 조사되었기 때문에 타 년도와 비교할 수 없어, 참고사항으로 표기하였다 (Table 10).

Table 10. Number of *Qigong*-related Studies per Year.

Studies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D.T.	16	17	28	16	29	31	32	30	18	217
M.T.	75	86	74	80	73	53	64	54	47	606
J.P.	136	127	172	152	158	173	172	173	61	1,324
Total	<b>227</b>	230	<b>274</b>	248	260	257	268	257	126	2,147
	<b>10.57%</b>	10.71%	<b>12.76%</b>	11.55%	12.11%	11.97%	12.48%	11.97%	5.87%	100.00%

D.T. : Doctorial Thesis , M.T. : Master's Thesis, J.P. : Journal Paper

\* : *Qigong*-related Studies in 2016 had researched until August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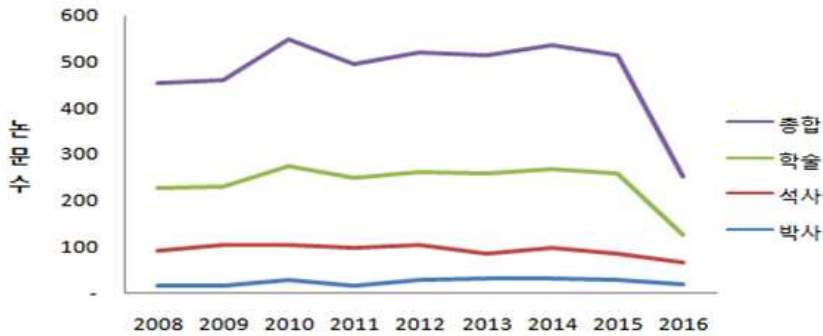


Fig. 1. Number of *Qigong*-related Studies per Year since 2008.

이 중에 『2008년 Han의 논문』에서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명상 분야 연구, 기철학 분야 연구(본 논문에서 규정함)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총 777건으로 『2008년 Han의 논문』에 나타난 1979년부터 2007년까지의 경향성과는 달리 연평균 92.9건으로 연도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꾸준히 보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는 2010년이 위와 마찬가지로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이 67건으로 가장 적었다(Table 11).

Table 11. Number of *Qigong*-related Studies per Year excluding meditation, Philosophy on Qi(氣).

Studies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D.T.	8	11	10	8	13	14	11	8	5	88
M.T.	38	23	27	23	24	15	17	11	14	192
J.P.	57	52	73	57	56	68	71	48	15	497
Total	103	86	110	88	93	97	99	67	34	777
	13.26%	11.07%	14.16%	11.33%	11.97%	12.48%	12.74%	8.62%	4.38%	100.00%

D.T. : Doctorial Thesis , M.T. : Master's Thesis, J.P. : Journal Paper

\* : *Qigong*-related Studies in 2016 were researched until August 31.

## 2) 연구 주제별 분류

연구 주제별 분류 결과, 인문학 분야가 805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해수양 분야가 2건으로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사회과학, 의약학, 예술체육 분야가 200백건 이상으로 많이 나왔고, 공학, 자연과학이 30건 이하로 적게 나왔다. 가장 많은 건수인 인문학 분야는 사회과학 분야와는 288건, 의약학 분야와는 406건의 차이가 발생하여, 인문학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2).



연구 주제별 중분류로 분류하면 가장 많은 건수는 인문학 분야의 철학이 280건이었고, 다음으로 사회과학 분야의 교육학이 243건, 인문학 분야의 불교학이 242건, 사회과학 분야의 심리과학이 198건, 의약학 분야의 한의학이 195건이었다(Table 14).

Table 14. Number of *Qigong*-related Studies per Middle Subject Categories by year

Subject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Eng.	1	2	3	3	3	3	5	2	2	24	
Agri.								2		2	
Int.	19	22	14	12	22	13	13	18	6	139	
B.S.	5	7	7	5	4	3	7	7		45	
Ps.S.	12	13	6	5	14	3	4	4	3	64	
In.R.	2	2	1	2	4	7		6	2	26	
etc.	0	0	0	0	0	0	2	1	1	4	
Soc.	52	67	58	58	64	54	62	68	34	517	
Edu	32	36	30	31	34	15	23	25	17	243	
M.Soc.	3		2		1	3	3	3	2	17	
S.S.	3	2	4	4	5	1	6			25	
Psy.	14	22	18	19	21	33	23	36	12	198	
etc.	0	7	4	4	3	2	7	4	3	34	
Arts.	26	20	28	28	36	29	32	27	23	249	
Dsi.		2	2	1		2			1	8	
Dce.	2	1	1	2	3	2	4	3	1	19	
F.A.	3	3	6	3	4	4	5	4	5	37	
G.A		1			1	2	1		1	7	
Spo.	19	13	18	22	28	18	21	18	14	171	
etc.	2	0	1	0	0	1	1	1	1	7	
Med.	54	50	69	41	41	53	50	28	13	399	
F.M.	1	1	1	1	1	2	1	1		9	
Nur.	8	5	15	5	7	8	8	4	2	62	
M.M.	9	7	3	9	9	7	10	3	4	61	
P.M.	5	2	7	2	9	10	8	5	1	49	
G.M.			2	2		1	2			7	
PsM.		1	3	1	2	2		2		11	
H.M	30	34	37	21	12	22	20	13	6	195	
etc.	1	0	1	0	1	1	1	0	0	5	
Hum.	74	69	98	104	94	100	106	112	48	805	
M.H.	4	2	12	8	8	10	6	6	1	57	
Lit.	2	1	1	3	5	2	4	5	1	24	
Bud.	12	15	18	38	34	30	34	41	20	242	
His.	1		2	1		2		3	1	10	
Cof.	5	7	3	5	2	4	7	6	4	43	
Rel.	11	8	12	11	9	11	9	6	4	81	
C.L.	2	2	3	2	3	4	3	3		22	
Phi.	33	31	35	34	28	35	34	34	16	280	
K.L.	2	2	3	1	2		7	8	1	26	
etc.	2	1	9	1	3	2	2	0	0	20	
Nat.	1		4	2		5				12	
Total	227 10.57%	230 10.71%	274 12.76%	248 11.55%	260 12.11%	257 11.97%	268 12.48%	257 11.97%	126 5.87%	2,147 100.00%	
Eng.	Engineering 공학					Agri.	Agriculture & Maritime Field 농수해양				
Int.	Interdisciplinary 복합학					Soc.	Social Science 사회과학				
B.S.	Brain Science 뇌과학					Edu.	Education 교육학				
Ps.S.	Psychological Science 심리과학					M.Soc.	Misc. Social Sciences 기타사회과학				
In.R.	Interdisciplinary Research 학제간연구					S.S.	Social Service 사회복지학				
						Psy.	Psychology 심리과학				
Arts.	Arts&Sports Field 예술학					Med.	Medicine Field 의학학				
Dsi.	Design 디자인					F.M.	Family Medicine 가정의학				
Dce.	Dance 무용					Nur.	Nursing 간호학				
F.A.	Fine Arts 미술					M.M.	Misc. Medicine 기타의약학				
G.A	Arts (General) 예술일반					P.M.	Preventive Medicine 예방의학				
Spo.	Sports 체육					G.M.	Medicine(General) 의학일반				
						PsM.	Psychology 정신과학				
						H.M	Herbal Medicine 한의학				
Hum.	Humanities 인문학					Nat.	Natural Sciences 자연과학				
M.H.	Misc. Humanities 기타인문학										
Lit.	Literature 문학										

Bud. Buddhism 불교학  
 His. History 역사학  
 Cof. Confucianism 유교학  
 Rel. Religion 종교학  
 C.L. Chinese/Chinese Literature 중국어와문학  
 Phi. Philosophy 철학  
 K.L. Korean/Korean Literature 한국어와문학

etc. : It combines a number of Study Subject less than five.

같은 방식으로 연구 주제별 분류에서 명상 관련 연구, 기철학 관련 연구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위와 달리 예술체육 분야의 체육이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약학 분야의 한의학이 138건, 인문학 분야의 철학이 123건, 종교학이 56건으로 나타났다. 인문학 분야의 불교학과 사회과학분야의 심리과학 건수가 5건 이하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볼 때, 불교학과 심리과학 분야에 명상 또는 기철학 분야의 연구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15).

Table 15. Number of *Qigong*-related Studies per Middle Subject Categories by year excluding Meditation, Philosophy on Qi(氣)

Subject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Eng.	1	1	1	1	1	1	2	1	1	10
Agri.								1		1
Int.	5	7	5	5	5	4	5	3	1	40
B.S.	4	6	5	4	3	2	5			29
In.R.	1	1		1	2	2		2	1	10
etc.								1		1
Soc.	7	7	5	7	5	1	8	2	3	45
Edu	4	4	2	4	2		1	1	2	20
S.S.	1		2	1	3		1			8
etc.	2	3	1	2	0	1	6	1	1	17
Arts.	15	11	15	21	28	19	24	13	11	157
Dce.		1		1	1	1	4	2	1	11
Spo.	15	10	15	19	26	15	20	10	9	139
etc.	0	0	0	1	1	3	0	1	1	7
Med.	43	37	48	25	23	30	25	13	5	249
Nur.	6	5	11	5	5	1	2	2	1	38
M.M.	8	4	2	3	2	4	5	1	1	30
P.M.	5	2	5	1	6	7	7	3		36
H.M	23	26	28	15	9	16	11	7	3	138
etc.	1	0	2	1	1	2	0	0	0	7
Hum.	32	23	35	27	31	39	35	34	13	269
M.H.	1		2	3	1	5		3		15
Lit.	1	1					1	2	1	6
Bud.	1	1		1	5	3	3	2	1	17
His.	1		1	1		1		3	1	8
Cof.	1	1	1		2	1	2		1	9
Rel.	7	8	7	9	6	6	8	4	1	56
C.L.	1	2	1		1	2	1	2		10
Phi.	17	10	16	13	13	19	15	13	7	123
K.L.	1		1		1		5	5	1	14
etc.	1	0	6	0	2	2	0	0	0	11
Nat.			1	2		3				6
Total	103	86	110	88	93	97	99	67	34	777
	10.57%	10.71%	12.76%	11.55%	12.11%	11.97%	12.48%	11.97%	5.87%	100.00%
Eng.	Engineering 공학				Agri.	Agriculture & Maritime Field 농수해양				
Int.	Interdisciplinary 복합학				Arts.	Arts&Sports Field 예술학				
B.S.	Brain Science 뇌과학				Dce.	Dance 무용				
In.R.	Interdisciplinary Research 학제간연구				Spo.	Sports 체육				

Soc.	Social Science 사회과학	Med.	Medicine Field 의학학
Edu.	Education 교육학	Nur.	Nursing 간호학
Psy.	Psychology 심리과학	M.M.	Misc. Medicine 기타의학학
S.S.	Social Service 사회복지학	P.M.	Preventive Medicine 예방의학
		H.M.	Herbal Medicine 한의학
Hum.	Humanities 인문학	Nat.	Natural Sciences 자연과학
M.H.	Misc. Humanities 기타인문학		
Lit.	Literature 문학		
Bud.	Buddhism 불교학		
His.	History 역사학		
Cof.	Confucianism 유교학		
Rel.	Religion 종교학		
C.L.	Chinese/Chinese Literature 중국어와문학		etc. : It combines a number of Study
Phi.	Philosophy 철학		Subject less than five.
K.L.	Korean/Korean Literature 한국어와문학		

### 3) 기공 분야별 분류

#### (1) 연도에 따른 기공 분야별 분류

본 논문에서 규정한 기공의 분야에 따라 분류를 해 본 결과, 중복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명상이 1,043(48.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철학 분야가 326(15.18%) 건, 양생이 201건, 도인 173건, 내단 155건, 기공일반 14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6).

Table 16. Number of *Qigong*-related Studies per *Qigong* Categories by Year not including Duplicates.

Categories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GQG.	26	17	23	19	17	15	19	5	6	147
GQG./DI.	1			1					1	3
GQG./L.N.						1				1
SQ.	5	8	10	7	5	5	3	1	1	45
SQ./ND.		1			1				1	3
SQ./DI.				1	1					2
SQ./Mdt.			1		1	1	1	1		5
SQ./EQT.	2									2
PhQ.	36	47	43	39	28	42	39	33	19	326
PhQ./ND.					1					1
PhQ./Mdt.					1					1
PhQ./L.N.		1				1				2
ND.	25	15	16	13	22	22	22	16	4	155
ND./DI.						1	2			3
ND./Mdt.	1				2	1		1		5
ND./L.N.				2			1	2		5
DI.	17	17	22	25	18	24	25	15	10	173
DI./Mdt.				1						1
DI./L.N.	2	1		2	3			2	1	11
Mdt.	88	97	121	121	138	118	130	157	73	<b>1,043</b>
Mdt./L.N.			1							1





### (2) 기공 분야에 따른 연구방법별 분류

중복 포함한 기공분야 중 기공일반, 기과학, 기철학, 내단, 방중, 양생은 분석연구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도인, 명상은 기술연구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외기발공은 실험연구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Table 20.).

Table 20. Number of *Qigong*-related Studies per Research Method by *Qigong* Categories including Duplicates.

Method	GQG.	SQ.	PhQ.	ND.	DI.	Mdt.	TSP.	L.N.	EQT.	Total
D.R.	43	1	2	17	<b>68</b>	<b>463</b>		40	1	635
A.R.	<b>86</b>	<b>24</b>	<b>318</b>	<b>138</b>	61	<b>362</b>	<b>4</b>	<b>169</b>	2	1,164
E.R.	14	21	0	10	43	31		1	<b>6</b>	126
Q.R.	8	11	10	7	21	<b>200</b>		11	0	268
총합계	151 6.89%	57 2.60%	330 15.05%	172 7.84%	193 8.80%	1056 48.15%	4 0.18%	221 10.08%	9 0.41%	2,193 100.00%

D.R. : Descriptive Research 기술연구      A.R. : Analysis Research 분석연구  
E.R. : Experimental Research 실험연구      Q.R. : Qualitative Research 질적연구

GQG. : Genaral *QiGong* 기공일반      SQ. : Science of Qi 기과학  
PhQ. : Philosophy of Qi 기철학      ND. : *Nae-Dan* 내단  
DI. : *Do-In* 도인      Mdt. : Meditation 명상  
TSP. : Taoist Sexual Practices 방중      L.N. : Life Nurturing 양생  
EQT. : External *Qigong* Therapy 외기발공

### (3) 연구 주제에 따른 연구방법별 분류

연구 주제 중 공학, 복합학, 예술체육, 의약학, 인문학 분야는 분석연구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는 기술연구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Table 21).

Table 21. Number of *Qigong*-related Studies per Research Method by Subject Categories.

Method	Eng. 공학	Agri. 농수해양	Int. 복합학	Soc. 사회과학	Arts. 예술체육	Med. 의약학	Hum. 인문학	Nat. 자연과학	Total
D.R.	6	1	39	<b>292</b>	71	155	57	<b>6</b>	627
A.R.	<b>9</b>	1	<b>54</b>	121	<b>122</b>	<b>161</b>	<b>666</b>	4	1,138
E.R.	7		14	6	36	42	11	2	118
Q.R.	2		32	98	20	41	71		264
총합계	24 1.12%	2 0.09%	139 6.47%	517 24.08%	249 11.60%	399 18.58%	805 37.49%	12 0.56%	2,147 100.00%

D.R. : Descriptive Research 기술연구      A.R. : Analysis Research 분석연구  
E.R. : Experimental Research 실험연구      Q.R. : Qualitative Research 질적연구

Eng. : Engineering(공학),      Agri. : Agriculture & Maritime Field(농수해양),  
Int. : Interdisciplinary(복합학),      Soc. : Social Science(사회과학),  
Arts. : Arts&Sports Field(예술체육),      Med. : Medicine Field(의약학),  
Hum. : Humanities(인문학),      Nat. : Natural Sciences(자연과학).



## 5) 연구자 및 발행처 분석

### (1) 연구자 분석

#### ① 주저자 분석

선정된 논문의 주저자를 분석해본 결과 5편 이상 연구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는 총38명이었고, 이 중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주저자는 정우진이 24건, 정경희가 12건, 김지선이 11건, 이승호가 10건, 석봉래가 9건 등으로 나타났다. 정우진은 기공분야 중 주로 양생, 기철학, 내단, 명상, 방중 등 기공학 관련 대부분의 영역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경희는 주로 기철학과 내단 분야, 김지선은 도인, 양생 분야, 이승호는 명상분야, 석봉래는 명상분야에서 주로 연구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2).

Table 22. List of the first authors with five or more selected studies

First Author	Subject Categories	GQG. 기공일반	SQ. 기과학	PhQ. 기철학	ND. 내단	DI. 도인	Mdt. 명상	TSP. 방중	L.N. 양생	Total
1 정우진	M.H.			2						2
	G.M.			1						1
	Rel.				3			1	4	8
	Phi.	1		1			2	1	8	13
2 정경희	Dce.(M.T.)						1			1
	His.			1	2					3
	Rel.				2					2
	Phi.			3	3					6
3 김지선	Spo.(D.T.)					1				1
	M.M.					1			1	2
	Spo.					5			2	7
	In.R.					1				1
4 이승호	Phi.(D.T.)				1					1
	B.S.						5			5
	Rel.	1								1
	Phi.	1			1		1			3
5 석봉래	Bud.						9			9
6 윤병수	F.M.						2			2
	Edu.						1			1
	Bud.						1			1
	Psy.						3			3
7 임채우	M.H.				1					1
	Rel.				2					2
	Phi.	1		1	2					4
8 이영찬	M.H.			3						3
	Sc.			3						3
	Phi.			1						1
9 김은정	M.M.								1	1
	S.S.						1			1
	Spo.				1	3				4

		In.R.				1			1		
10	김이순	P.M.				1			1	7	
		Sta.				1			1		
		In.R.				1			1		
		H.M.	2			2			4		
11	김형록	Bud.					5		5	7	
		Psy.					1		1		
		In.R.					1		1		
12	김성장	B.S.		1					1	6	
		Bud.				1			1		
		Rel.				1			1		
		Phi.				3			3		
13	이봉호	Rel.	2			1	1		4	6	
		Phi.				1			1		2
14	김시천	Rel.			2				1	3	6
		Phi.			2				1	3	
15	김말환	Bud.					4		4	6	
		Psy.					2		2		
16	이영순	Psy.(D.T.)					1		1	6	
		Psy.(M.T.)					1		1		
		Bud.					1		1		
		Psy.					3		3		
17	김미한	Nur.					1		1	6	
		Edu.					4		4		
		In.R.					1		1		
18	인경	Bud.					4		4	6	
		Psy.					2		2		
19	한창현	H.M.(D.T.)	1						1	6	
		H.M.	4					1	5		
20	김현수	Phi.(D.T.)			1				1	6	
		Lit.			1				1		
		Rel.			1		1		2		
		Phi.	1		1				2		
21	김완석	Bud.					1		1	6	
		Psy.					5		5		
22	손병욱	Edu.					1		1	6	
		M.H.				1			1		
		Lit.			1				1		
		Bud.					1		1		
23	안양규	Phi.				1			2	6	
		Bud.					5		5		
24	차정연	Psy.					1		1	6	
		M.Soc.(D.T.)					1		1		
25	장승희	Bud.(M.T.)					1		1	5	
		Bud.					3		3		
26	임승택	Edu.					5		5	5	
		Bud.					3		3		
		Psy.					1		1		

		Phi.					1			1		
27	윤희조	Bud.					5			5	5	
28	김성수	Bud.(D.T.)					1			1	5	
		Bud.					3			3		
		Spo.						1				1
29	이근철	Phi.(D.T.)			1					1	5	
		Rel.	1			3						4
30	강미자	Bud.(D.T.)								1	5	
		Bud.(M.T.)								1		1
		Bud.								3		3
31	김재성	Bud.								5	5	
32	김경수	Phi.(M.T.)			1						1	5
		Cof.				1					1	
		Phi.				3					3	
33	박혜숙	Nur.								5	5	
34	정혜정	Phi.(M.T)								1	1	5
		Edu.								3	3	
		Rel.			1						1	
35	박황진	H.M.(D.T.)								1	1	5
		H.M.(M.T.)		1							1	
		H.M.	1							2	3	
36	곽동열	M.M.(D.T.)						1			1	5
		P.M.		1				3			4	
37	이은주	M.H.								1	1	5
		Regi.								1	1	
		Phi.								3	3	
38	안희영	Edu.								2	2	5
		Bud.								3	3	
총합계			16	3	28	34	22	127	2	28	260	

**GQG.** : General *QiGong* 기공일반

**PhQ.** : Philosophy of Qi 기철학

**DI.** : *Do-In* 도인

**TSP.** : Taoist Sexual Practices 방중

**EQT.** : External *QiGong* Therapy 외기발공

**SQ.** : Science of Qi 기과학

**ND.** : *Nae-Dan* 내단

**Mdt.** : Meditation 명상

**L.N.** : Life Nurturing 양생

Int.	Interdisciplinary	복합학	Arts.	Arts&Sports Field	예술학
B.S.	Brain Science	뇌과학	Dce.	Dance	무용
In.R.	Interdisciplinary Research	학제간연구	Spo.	Sports	체육
Soc.	Social Science	사회과학	Med.	Medicine Field	의학학
Edu.	Education	교육학	Nur.	Nursing	간호학
Psy.	Psychology	심리과학	G.M.	Medicine(General)	의학일반
Regi.	Regional Studies	지역학	M.M.	Misc. Medicine	기타의학학
S.S.	Social Service	사회복지학	P.M.	Preventive Medicine	예방의학학
			H.M	Herbal Medicine	한의학
Hum.	Humanities	인문학	Nat.	Natural Sciences	자연과학
M.H.	Misc. Humanities	기타인문학	Sta.	Statistics	통계학
Lit.	Literature	문학			
Bud.	Buddhism	불교학			
His.	History	역사학			

Cof. Confucianism 유교학  
 Rel. Religion 종교학 · D.T. Doctorial Thesis  
 Phi. Philosophy 철학 M.T. Master's Thesis

② 공동저자 또는 지도교수 분석

선정된 논문의 공동저자 또는 지도교수를 분석해 본 결과 5편 이상 연구 논문에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거나 학위논문을 지도한 연구자는 총47명이었고, 이 중 가장 많은 논문에 참여하거나 지도한 연구자는 김병채로 35건이었고, 이어 김낙필이 26건, 이상남이 23건, 김미리혜가 19건, 김정호가 16건, 한창현 15건, 박지하 15건, 김현문 14건, 허일웅 14건, 정경희 13건, 김형록 12건, 권영규 12건, 송영숙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병채, 김낙필, 김미리혜, 김정호, 김현문, 정경희, 김형록, 송영숙의 경우는 학위논문의 지도교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상남, 한창현, 박지하, 권영규는 주로 공동연구자인 경우로 나타났다 (Table 23).

Table 23. List of Co-Authors or Thesis Director with five or more selected studies.

Co-author*		Subject Categories	D.T. 박사	M.T. 석사	J.P. 학술	Total	
1	김병채	Edu. 교육학	3	27		30	35
		Psy. 심리과학	1	4		5	
2	김낙필	Bud. 불교학	9			9	26
		Phi. 철학		17		17	
3	이상남	H.M 한의학	2	3	18	23	23
4	김미리혜	F.M. 가정의학			1	1	19
		Psy. 심리과학		15	2	17	
		PsM. 정신과학			1	1	
5	김정호	F.M. 가정의학			1	1	16
		Psy. 심리과학		10	5	15	
6	한창현	H.M 한의학	1		14	15	15
7	박지하	H.M 한의학	4	3	8	15	15
8	김현문	P.M. 예방의학		14		14	14
9	허일웅	Spo. 체육	4	9	1	14	14
10	정경희	Phi. 철학	2	8		10	13
		Spo. 체육	3			3	
11	김형록	M.M. 기타의약학	1			1	12
		Psy. 심리과학	7	3		10	
		In.R. 학제간연구			1	1	
12	권영규	H.M 한의학	1	2	9	12	12
13	이해웅	H.M 한의학	1		9	10	10
14	송영숙	Psy. 심리과학		10		10	10
15	이수경	Edu. 교육학		7		7	9
		Psy. 심리과학		2		2	
16	정준영	Bud. 불교학	4	4		8	9
		H.M 한의학			1	1	

17	이재범	Spo. 체육		7	2	9	9
18	최선미	H.M. 한의학	1		8	9	9
19	김지선	M.M. 기타의약학			2	2	8
		Spo. 체육		1	4	5	
		In.R. 학제간연구			1	1	
20	이거룡	M.M. 기타의약학		8		8	8
21	김완석	Psy. 심리과학	2	5	1	8	8
22	김경철	Sta. 통계학			1	1	8
		In.R. 학제간연구			1	1	
		H.M. 한의학			6	6	
23	이기남	H.M. 한의학	1	7		8	8
24	안상우	H.M. 한의학	2		6	8	8
25	김정모	M.M. 기타사회과학			1	1	7
		Psy. 심리과학	1	5		6	
26	조현미	M.M. 기타의약학		7		7	7
27	장익	Bud. 불교학	2	5		7	7
28	이형환	M.M. 기타의약학	2			2	7
		P.M. 예방의학		1	4	5	
29	박성식	M.H. 기타인문학			1	1	7
		Bud. 불교학			3	3	
		H.M. 한의학			3	3	
30	곽이섭	In.R. 학제간연구			1	1	7
		H.M. 한의학			6	6	
31	김종우	Psy. 심리과학			1	1	6
		H.M. 한의학		2	3	5	
32	전성문	Edu. 교육학	1	4	1	6	6
33	한창현	H.M. 한의학			6	6	6
34	손정락	Psy. 심리과학	1	3	1	5	6
		F.M. 가정의학			1	1	
35	주성옥	Bud. 불교학		5		5	5
36	조옥경	M.M. 기타의약학	1			1	5
		Bud. 불교학	2			2	
		Psy. 심리과학		1	1	2	
37	박종흠	Edu. 교육학	2	2		4	5
		Psy. 심리과학		1		1	
38	김애정	Nur. 간호학			5	5	5
39	안양규	Bud. 불교학	1	4		5	5
40	박수진	S.S. 사회복지학			1	1	5
		H.M. 한의학			4	4	
41	정광조	Edu. 교육학			1	1	5
		M.M. 기타의약학	1			1	
		P.M. 예방의학		2		2	
		In.R. 학제간연구			1	1	
42	김범준	M.M. 기타의약학		5		5	5
43	김은정	M.M. 기타의약학			3	3	5
		Psy. 심리과학		1		1	
		Spo. 체육			1	1	
44	김세곤	Edu. 교육학		2		2	5

		Bud. 불교학		3		3	
45	박대섭	H.M. 한의학			5	5	5
46	정봉교	Psy. 심리과학	1	4		5	5
47	박성현	Bud. 불교학		1	1	2	5
		Psy. 심리과학		2	1	3	
Total			64	226	153	443	
Int.	Interdisciplinary 복합학			Arts.	Arts&Sports Field 예술학		
B.S.	Brain Science 뇌과학			Dce.	Dance 무용		
In.R.	Interdisciplinary Research 학제간연구			Spo.	Sports 체육		
Soc.	Social Science 사회과학			Med.	Medicine Field 의약학		
Edu.	Education 교육학			Nur.	Nursing 간호학		
Psy.	Psychology 심리과학			G.M.	Medicine(General) 의학일반		
Regi.	Regional Studies 지역학			M.M.	Misc. Medicine 기타의약학		
S.S.	Social Service 사회복지학			P.M.	Preventive Medicine 예방의학		
				F.M.	Family Medicine 가정의학		
				PsM.	Psychology 정신과학		
				H.M.	Herbal Medicine 한의학		
Hum.	Humanities 인문학			Nat.	Natural Sciences 자연과학		
M.H.	Misc. Humanities 기타인문학			Sta.	Statistics 통계학		
Lit.	Literature 문학				D.T. : Doctorial Thesis		
Bud.	Buddhism 불교학				M.T. : Master's Thesis		
His.	History 역사학				*D.T & M.T.'s case = Thesis Director		
Cof.	Confucianism 유교학				J.P.'s case = Co-author		
Rel.	Religion 종교학						
Phi.	Philosophy 철학						

공동 저자 또는 지도교수로 건수가 높은 상위 18명을 발행처와 기공분야별로 분석을 해본 결과, 김병채는 명상 분야의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김낙필은 기공학관련 전 분야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상남, 한창현, 박지하, 권영규, 최선미 등은 한의학 분야에서 기공 일반, 양생 등의 기공관련 다양한 범주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미리혜, 김정호는 명상관련 분야를 전문 연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허일웅, 이재범은 명지대학교에서 주로 체육 분야에서, 기공분야 중에선 도인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4).

Table 24. Top 18<sup>th</sup> List of the Co-Authors or the Thesis Director per *Qigong* Categories.

Co-author*	Publisher	GQG.	SQ.	PhQ.	ND.	DI.	Mdt.	TSP.	L.N.	EQT.	Total		
1	김병채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35				35		
2	김낙필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6	2	3	9	4	3	1	2	26	
3	이상남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1				2			1	1	5
		대구한의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	3									3
		대한경락경혈학회		1									1
		대한동의생리학회·대한동의병리학회		3							2		5
		대한예방한의학회									1		1

		대한한의학원전학회	1				1			2		
		한국한의학연구원	3			2	1			6		
4	김미리혜	대한스트레스학회					1			1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15				15		
		한국건강심리학회					2				2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1				1	
		대한스트레스학회					1				1	
5	김정호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10			10		
		덕성여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			1		
		한국건강심리학회					4				4	
		대한한의학원전학회					1				1	
6	한창현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1	1		
		대한동의생리학회·대한동의병리학회	1						2	3		
		대한예방한의학회								1	1	
		대한한의학원전학회						1			1	
		한국한의학연구원	5			3	1				9	
7	박지하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2	2		2	1			7		
		대한경락경혈학회	1								1	
		대한동의생리학회·대한동의병리학회	1								1	
		대한한의학원전학회						1			1	
		한국한의학연구원	2			2	1				5	
8	김현문	한서대학교 건강증진대학원	5		6	1	2			14		
9	허일웅	대한무도학회							1	1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6			6			1		13	
10	정경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1		3	9				13		
11	김형록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11			11	
		질적연구학회						1			1	
12	권영규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1				1		1		3	
		대한동의생리학회·대한동의병리학회	2				1			3	6	
		대한한의학원전학회	1								1	
		한국한의학연구원	2								2	
13	이해웅	대한예방한의학회	2				1			1	4	
		대한한의진단학회	1								1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				2
		동의대학교 대학원					1					1
		한국한의학연구원	2									2
14	송영숙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10			10	
15	이수경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5			5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4				4
16	정준영	사상체질의학회						1			1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8				8
17	이재범	대한무도학회	1								1	

18	최선미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1				6					7
		한국체육학회	1									1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1					1
		대한경락경혈학회					1					1
		대한동의생리학회·대한동의병리학회	2									2
		대한한의학원전학회	1									1
		대한한의학학회	1									1
Total		62	4	6	24	35	124	1	17	1	270	

**GQG.** : General *QiGong* 기공일반  
**PhQ.** : Philosophy of Qi 기철학  
**DI.** : *Do-In* 도인  
**TSP.** : Taoist Sexual Practices 방중  
**EQT.** : External *Qigong* Therapy 외기발공

**SQ.** : Science of Qi 기과학  
**ND.** : *Nae-Dan* 내단  
**Mdt.** : Meditation 명상  
**L.N.** : Life Nurturing 양생

### ③ 저자 종합 분석

주저자와 공동저자 또는 지도교수를 모두 종합해 조사했을 때 결과는 김병채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낙필이 34건, 이상남이 26건, 정경희가 25건, 정우진이 24건, 한창현이 21건, 김미리혜가 20건으로 나타났다(Table 25).

Table 25. Top 40<sup>th</sup> List of Sum of the First author, Co-Author and Thesis Director.

Rank	Author	First Author	Co-Author	Thesis Director	Total
1	김병채			35	35
2	김낙필	4		30	34
3	이상남	3	18	5	26
4	정경희	12		13	25
5	정우진	24			24
6	한창현	6	14	1	21
7	김미리혜	1	4	15	20
8	김형록	7	1	11	19
9	김지선	11	7	1	19
10	김정호	1	6	10	17
11	허일웅	1	1	13	15
12	박지하		8	7	15
13	김완석	6	1	7	14
14	김현문			14	14
15	송영숙	3		10	13
16	권영규	1	9	3	13
17	정준영	3	1	8	12
18	김은정	7	4	1	12
19	김경철	3	8		11
20	안양규	6		5	11



21	김이순	7	4	0	11
22	이수경	2		9	11
23	이재범	1	2	7	10
24	이해웅		9	1	10
25	이승호	10			10
26	최선미		8	1	9
27	박성현	4	2	3	9
28	석봉래	9			9
29	임채우	7		2	9
30	조옥경	4	1	4	9
31	안상우	1	6	2	9
32	이기남			8	8
33	유양경	4	4		8
34	심준영	4	2	2	8
35	김애정	3	5		8
36	이거룡			8	8
37	김정모	1	1	6	8
38	이형환	1	4	3	8
39	손정락	2	2	4	8
40	손병욱	6	1	1	8
Total		165	133	250	548

(2) 발행지 및 발행처 분석

기공 관련 가장 많은 연구를 발표한 저널은 『도교문화연구』로 52건이었고, 『선도문화』가 36건, 『불교문화』가 35건, 『명상치료연구』가 31건,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가 30건, 『명상심리상담』이 26건, 『한국심리학회지』가 25건, 『한국정신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이 23건,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가 20건, 『동서철학연구』가 20건, 『동양철학연구』가 19건 등으로 나타났다. 상위 45개의 발행지만 살펴봤을 때는 인문학분야 연구가 332(평균:137.0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6).

Table 26. Top 45<sup>th</sup> List of Journal that publish *Qigong*-related Studies per Subject Categories.

R.	Journal	Publisher	Int.	Soc.	Arts.	Med.	Hum.	Total
1	도교문화연구	한국도교문화학회					52	52
2	선도문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36	36
3	불교문화	대한불교진흥원					35	35
4	명상치료연구	한국명상치료학회	31					31
5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대한한의학원전학회				30		30
6	명상심리상담	한국명상상담학회		26				26
7	한국심리학회지	한국심리학회	25					25
8	한국정신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한국정신과학회	23					23
9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20		20

10	동서철학연구	한국동서철학회					20	20
11	동양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회					19	19
12	동의생리병리학회지	대한동의생리학회·대한동의병리학회				18		18
13	한국명상학회지	한국명상학회		17				17
14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17	17
15	한국체육철학회지	한국체육철학회			15	1		16
16	불교학보	동국대학교					16	16
17	한국철학논집	한국철학사연구회		1			14	15
18	한국선학	한국선학회					14	14
19	한국불교학	한국불교학회					14	14
20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한국한의학연구원				14		14
21	대한예방한의학회지	대한예방한의학회				13		13
22	동양철학	한국동양철학회					13	13
23	한국체육과학회지	한국체육과학회			13			13
24	전인교육	전인교육학회		13				13
25	한국자연치유학회지	한국자연치유학회				12		12
26	불교와심리논문집	불교와심리연구원					11	11
27	한국사상과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					10	10
28	한국사회체육학회지	한국사회체육학회			10			10
29	철학연구	대한철학회					10	10
30	한국정신과학학회지	한국정신과학학회	9					9
31	동서간호학연구지	경희대학교				9		9
32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원광대학교					9	9
33	스트레스연구	대한스트레스학회				9		9
34	윤리교육연구	한국윤리교육학회		8				8
35	경락경혈학회지	대한경락경혈학회				8		8
36	불교학연구	불교학연구회					7	7
37	퇴계학논집	영남퇴계학연구원					7	7
38	유학연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7	7
39	유교사상문화연구	한국유교학회					7	7
40	대한의료기공학회지	대한의료기공학회				7		7
41	동서의학	대구한의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				7		7
42	상당학연구	한국상당학회		7				7
43	대한무도학회지	대한무도학회			7			7
44	한국학논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7	7
45	불교평론	만해사상실천선양회					7	7
Total			88	72	45	148	332	685

**Int.** : Interdisciplinary(복합학),

**Soc.** : Social Science(사회과학),

**Arts.** : Arts&Sports Field(예술체육),

**Med.** : Medicine Field(의약학),

**Hum.** : Humanities(인문학),

기공 관련 연구를 많이 발표한 상위 45개의 저널을 기공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도교 문화연구』는 내단 분야에 대한 연구가 24건으로 주를 이루었고, 『선도문화』도 내단이 18건으로 주를 이루었고, 『불교문화』, 『명상치료연구』, 『명상심리상담』, 『한국심리학회지』는 모두 명상 분야 연구였다. 『한국정신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은 기과학이 주를 이루었고,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는 양생 분야가 많았으며, 『동의신경정신과학회

지』는 명상 분야가 많았다. 『동서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는 기철학 분야가 주를 이루었다. 상위 45개의 저널만 종합했을 때, 명상 관련 분야 연구가 299(평균: 73.78건)건으로 가장 많았다(Table 27).

Table 27. Top 45<sup>th</sup> List of Journal that publish *Qigong*-related Studies per *Qigong* Categories.

R.	Journal	GGG.	SQ.	PhQ.	ND.	DI.	Mdt.	TSP.	L.N.	EQI.	Total
1	도교문화연구	5		8	24	2	1	1	11		52
2	선도문화	6		3	18	5	4				36
3	불교문화						35				35
4	명상치료연구						31				31
5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		12			3		13		30
6	명상심리상담				1		25				26
7	한국심리학회지						25				25
8	한국정신과학회학술대회	2	11	3			4	1	1	1	23
9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3				1	12		4		20
10	동서철학연구	1		18					1		20
11	동양철학연구	1		7	3		2		6		19
12	동의생리병리학회지	4		5		4	1		4		18
13	한국명상학회지						17				17
14	동아시아불교문화						17				17
15	한국체육철학회지	2		3	5	3	1		2		16
16	불교학보		1		1		14				16
17	한국철학논집			8	3		1		3		15
18	한국선학				1		13				14
19	한국불교학						14				14
20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7				4	1		2		14
21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				2			9		13
22	동양철학	1		7	1		1		3		13
23	한국체육과학회지	1	1			5	5		1		13
24	전인교육						13				13
25	한국자연치유학회지	1	2	1		6				2	12
26	불교와심리논문집						11				11
27	한국사상과문화	1		2	4		1		2		10
28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				7	1		1		10
29	철학연구			6			4				10
30	한국정신과학학회지		5	2						2	9
31	동서간호학연구지						2		7		9
32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1	3	1		3		1		9
33	스트레스연구						9				9
34	윤리교육연구			3			5				8
35	경락경혈학회지	2	1	3		2					8
36	불교학연구						7				7
37	퇴계학논집	2		3	1				1		7
38	유학연구			6			1				7

39	유교사상문화연구			6			1				7
40	대한의료기공학회지	2		1	2	1	1				7
41	동서의학	4	1	1	1						7
42	상담학연구						7				7
43	대한무도학회지	2			1	3			1		7
44	한국학논집			6					1		7
45	불교평론						7				7
총합계		51	17	115	61	42	299	2	74	3	685

**GQG.** : Genaral *QiGong* 기공일반  
**PhQ.** : Philosophy of Qi 기철학  
**DI.** : *Do-In* 도인  
**TSP.** : Taoist Sexual Practices 방중  
**EQT.** : External *QiGong* Therapy 외기발공

**SQ.** : Science of Qi 기과학  
**ND.** : *Nae-Dan* 내단  
**Mdt.** : Meditation 명상  
**L.N.** : Life Nurturing 양생

기공 관련 가장 많은 학위논문을 발표한 곳은 동국대학교로 75건이었고, 원광대학교가 70건, 창원대학교가 45건, 명지대학교가 31건, 영남대학교가 29건, 성균관대학교가 26건, 덕성여자대학교가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상위 21개 대학에서 발표한 학위논문만 살펴본 때는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가 177(평균:66.3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8).

Table 28. Top 21<sup>th</sup> List of Publisher that publish *QiGong*-related Thesis per Subject Categories.

R.	Publisher	Thesis	Eng.	Agri.	Int.	Soc.	Arts.	Med.	Hum.	Nat.	총합계
1	동국대학교	M.T.				42	1		32		75
		D.T.				3		3	5		11
2	원광대학교	M.T.				1		19	28		48
		D.T.					1	6	15		22
3	창원대학교	M.T.				36	1		1		38
		D.T.				7					7
4	명지대학교	M.T.		1	1		21				23
		D.T.				3	5				8
5	영남대학교	M.T.	1			14	3	2	1		21
		D.T.				3	5	1			9
6	성균관대학교	M.T.				3	1		11	1	16
		D.T.					1		9		10
7	덕성여자대학교	M.T.			3	22					25
8	국제뇌교육종합 대학원대학교	M.T.			1	2			11		14
		D.T.			2		3		4		9
9	대구한의대학교	M.T.				1		10			11
		D.T.						10	1		11
10	동방대학원대 학교	D.T.				8		6	4		18
		M.T.				1		2	1		4
11	서울불교대학	M.T.			1	4			6		11

	원대학교	D.T.				1		1	8		10			
12	경희대학교	M.T.				1	5	6	1		13	19		
		D.T.					1	4	1		6			
13	한서대학교	M.T.					1	14			15	15		
14	경기대학교	M.T.						12	1		13	14		
		D.T.				1					1			
15	대전대학교	M.T.						7	1		8	14		
		D.T.					1	3	2		6			
16	고려대학교	M.T.	1			4		1	4		10	13		
		D.T.	1			1	1				3			
17	선문대학교	M.T.				2		8	3		13	13		
18	아주대학교	M.T.	1			7					8	12		
		D.T.				2		1		1	4			
19	부산대학교	M.T.				2	3	1	1		7	10		
		D.T.			1		1	1			3			
20	위덕대학교	M.T.							7		7	10		
		D.T.							3		3			
21	경북대학교	M.T.				5	1		1		7	10		
		D.T.				1	1		1		3			
총합계						4	1	9	177	57	118	163	2	531

**Eng.** : Engineering(공학),

**Agri.** : Agriculture & Maritime Field(농수해양),

**Int.** : Interdisciplinary(복합학),

**Soc.** : Social Science(사회과학),

**Arts.** : Arts&Sports Field(예술체육),

**Med.** : Medicine Field(의약학),

**Hum.** : Humanities(인문학),

**Nat.** : Natural Sciences(자연과학).

기공 관련 가장 많은 학위논문을 발표한 상위 21개 대학의 기공 분야별 발표 논문을 조사해 본 결과, 명상관련 연구가 296(평균:57.22)건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대학 중 명지대학교만이 기공 분야 중 도인분야에 연구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 명상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Table 29).

Table 29. Top 21<sup>th</sup> List of Publisher that publish *Qigong*-related Thesis per *Qigong* Categories.

R.	Publisher	Thesis	GGG	SQ.	PhQ.	ND.	DI.	Mdt.	TSP.	L.N.	EQT.	총합계	
1	동국대학교	M.T.			3			72				75	86
		D.T.			1	1	1	8				11	
2	원광대학교	M.T.	5	2	3	2	10	17		9		48	70
		D.T.	1		1	10	1	6	1	2		22	
3	창원대학교	M.T.					1	37				38	45
		D.T.						7				7	
4	명지대학교	M.T.	9			1	10	2		1		23	31
		D.T.	1					3	3	1		8	
5	영남대학교	M.T.	1	1	3		2	14				21	29
		D.T.			1			7		1		9	
6	성균관대학교	M.T.			5		1	4		6		16	26
		D.T.	1		7			1		1		10	
7	덕성여자대학교	M.T.						25				25	25
8	국제뇌교육종합 대학원대학교	M.T.			2	8		4				14	23
		D.T.	2		1	6						9	
9	대구한의대학 교	M.T.	3	2			2	2		1	1	11	22
		D.T.	3		2	1	3	1		1		11	
10	동방대학원대 학교	D.T.	2	1	2	1	2	10				18	22
		M.T.	1					2		1		4	
11	서울불교대학 원대학교	M.T.					1	10				11	21
		D.T.			1			9				10	
12	경희대학교	M.T.	1		1	2	5	1		3		13	19
		D.T.	2			3	1					6	
13	한서대학교	M.T.	5			7	1	2				15	15
14	경기대학교	M.T.	1	1	2	1		7		1		13	14
		D.T.						1				1	
15	대전대학교	M.T.	4		1	1		1			1	8	14
		D.T.	1		1	1	1	1		1		6	
16	고려대학교	M.T.	1			1	1	4		3		10	13
		D.T.	1				1	1				3	
17	선문대학교	M.T.	2	1				6		4		13	13
18	아주대학교	M.T.		1				7				8	12
		D.T.			1			3				4	
19	부산대학교	M.T.						7				7	10
		D.T.						3				3	
20	위덕대학교	M.T.			1		2	3		1		7	10
		D.T.						3				3	
21	경북대학교	M.T.		2	1			4				7	10
		D.T.			1			1				3	
총합계			44	9	39	40	47	296	1	37	2	531	

GGG. : Genaral *QiGong* 기공일반

PhQ. : Philosophy of Qi 기철학

DI. : *Do-In* 도인

TSP. : Taoist Sexual Practices 방중

EQT. : External *Qigong* Therapy 외기발공

SQ. : Science of Qi 기과학

ND. : *Nae-Dan* 내단

Mdt. : Meditation 명상

L.N. : Life Nurturing 양생

## IV. 고찰

### 1. 연구의 배경

1957년 劉貴珍(1920~ 1983)이 「氣功療法實踐」을 출판하여 氣功이 各門 各派의 吐納 呼吸·導引·靜坐·內功·煉丹法 등을 총괄하는 명칭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sup>12)</sup> 기공이라는 명칭이 전 세계적 공용어로 확립이 되었다.

이 후 중국 기공은 두 번의 부흥기와 두 번의 큰 시련을 겪게 되면서 발전해오게 되는데, 1954년 중국정부의 정책적 지지를 받아 유귀진의 唐山氣功療養院이 설립되면서, 이를 필두로 전국적으로 기공요양원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문을 열고 수많은 기공사들이 훈련 배출되었고, 다수의 병의원에서 기공과가 설립되는 등 약 10 여년 간 중국기공은 백가쟁명의 기세로 힘차게 뻗어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1966년 문화대혁명의 시작과 함께 된서리를 맞게 되어 암흑기를 보내다가 이후 1978년 등소평의 개혁개방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였다<sup>13)</sup>. 이때 그동안 「門外不出」이라는 인습과 미신, 무속이라는 오인이 두려워 세상에 공개되지 못하고 있던 각종 유파들이 앞을 다투어 '비전', '비술'을 공개하였고, 옛 공법들을 기초하여 새로운 공법을 편성해내는 일이 유행하게 되었는데, 1977년 郭林의 '新氣功療法'과 1982년 趙金香의 '鶴翔椿氣功'이 대표적이다<sup>14)</sup>.

1987년 5월 중국의 대흥안령산맥에서 발생한 대화재를 기공사 嚴新<sup>15)</sup>이 천기조절법을 통한 발공으로 비를 내려 진압했다는 기사가 발표되어 기공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증폭하게 되었고, 1990년 북경 아시안 게임 개막식에 10,000명이 단체로 태극권 시범을 한 것과 우수에 태극권이 포함된 것 등,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에 힘입어 태극권이 전세계적으로 보급 확산되었으며<sup>16)</sup>, 1992년 이홍지가 法輪功을 창시하고 보급하면서 중국 기공은 절정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1999년 4월25일 북경 중난하이에 발생한 동료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6,300여명의 대규모 시위를 법륜공 창시자 이홍지가 조종했다는 이유로 1999년 7월 법륜대법연구회와 산하 조직을 불법화하고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수행자와 지도자들을 검거하는 등 중국정부는 2001년까지 법륜공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게 됨으로써 중국기공은 다시 한 번 큰 시련을 맞게 된다.

중국정부는 난립한 기공 단체들을 국가의 직접관리 아래에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1998년 2월22일자 중화인민공화국국가체육위원회(中華人民共和國國家體育委員會)의 이름

12) 李東鉉. op. cit., p.48.

13) Lee Ji-Kwan. op. cit., p.12.

14) Kim Woo Ho. op. cit., p.56.

15) [https://zh.wikipedia.org/wiki/%E4%B8%A5%E6%96%B0#cite\\_note-1](https://zh.wikipedia.org/wiki/%E4%B8%A5%E6%96%B0#cite_note-1)

16) Lee Ji Heon. A study on Influx of do to Korea and its Development Proces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Korea. 2011:59. p.35.

으로 건신기공관리법(健身氣功管理法)과, 건신기공사기술등급편심판법(健身氣功師技術等級評審辦法)을 제정반포하였으나 법률평 사태를 계기로 2000년 9월11일자 국가체육총국령(國家體育總局令) 제4호로 건신기공관리잠행법(健身氣功管理暫行辦法)을 새로 제정 반포한 뒤에 계속적인 개정으로 2006년 12월 20일부터 중국의 전통기공법과 현대의 의과학 지식을 접목하여 9가지 공법을 새로 창편 발표하였다. 이후에도 중국정부는 국제건신기공협회(國際健身氣功協會)를 두고 기공을 직접 관리, 연구, 보급하고 있어<sup>17)</sup> 중국 기공은 철저히 정부 주도하에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 시초기인 70년대에 중국으로부터 氣功이라는 명칭이 유입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이며, 1980年代에 들어서 이러한 氣功, 단전호흡 등이 대중적 관심을 끌고 주목되기 시작하였다. 안<sup>18)</sup>은 이에 대해 당시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두고 한편으로 민족문화의 源流를 찾는 데에 관심을 지니고 있었고, 丹學, 단전호흡에 대한 關心이 확산된 것도 이러한 분위기의 여파라고 보았다. 또한 1984년에 발간한 실존 인물 우학도인 권태훈<sup>19)</sup> 옹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인 김정빈의 『丹』<sup>20)</sup>, 1986년 발간된 洪泰洙의 『丹의 實象』<sup>21)</sup> 등은 기공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고, 기공의 붐을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92년 한중수교의 체결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으로써 郭林의 新氣功療法, 林厚省의 太極氣功十八式, 嚴新의 開智功, 元極功, 法輪功 등의 기공 수련법들이 더욱 더 활발히 유입되었고, 이러한 영향 아래 한국에 자생적 기공 수련 단체인 國仙道, 丹學仙院(단월드), 研精院, 天道仙法, 甌山道, 金仙學會, 石門呼吸 등등도 대중들에게 두각을 나타냈으며, 오쇼 라즈니쉬(1931-1990)<sup>22)</sup>, 크리스나무르티(1895-1986)<sup>23)</sup>등과 같은 명상가들과 관련된 각종 명상 센터들도 앞 다투어 개설되어 가히 90년대는 “氣” 열풍의 시대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 열풍의 흐름은 단순한 호기심, 신비적 체험에 대한 동경, 건강에 대한 열망, 신안적 열정에서 그치지 않고 학문적인, 과학적인 관점에서도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는데, 1990년 이동현이 『건강기공』<sup>24)</sup>을 발간하여 한국에서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공 연구의 단초를 제공해 주었고, 1994년 10월에 精神科學會가 創立되어 氣哲學, 氣功醫學, 氣科學, 氣產業 등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특히 氣의 科學的 解明과 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1994년에는 大韓醫療氣功學會가 創立되어 현재까지도 한의학

17) Lee Ji-Kwan. op. cit., pp.13-15.

18) 안영배. 한국 기공단체의 현황분석. 한국기공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원광대학교. 2000.

1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0332&cid=46653&categoryId=46653>

20) 김정빈. 丹 서울:정신세계사. 1984.

21) 洪泰洙 著. 丹의 實象. 서울:東亞文學社. 1986.

2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67993&cid=44546&categoryId=44546>

2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7515&cid=44546&categoryId=44546>

24) 李東鉉. op. cit.



과 기공에 대한 관계, 氣功治療의 學問的 接近과 활용 등에 많은 관심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990年代 末葉에는 명지대 사회체육 대학원과 원광대 동양학대학원에서 氣功學 전공이 開設되어, 氣功學을 獨立된 學問으로 進入시키는 重要한 역할을 하였고<sup>25)</sup>, 이어서 2000년대 초반에 대구한의대학교(구 경산대학교)에도 기공학 전공이 개설됨으로써, 대한의리기공학회와 함께 기공학과 한의학의 상호 연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중국 기공이 법륜공 사대로 이후 철저히 정부의 규제와 관리를 받게 되면서 학문적 다양성과 자발성이 사라지며 다소 위축되었다면, 한국의 기공은 90년대의 기 열풍의 거품은 빠졌지만 이후에는 매우 다양하고 폭넓게 그리고 꾸준히 학문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다만, 역설적으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부족하여 제도적, 경제적 한계에 부딪쳐 뚜렷한 학문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아쉬움도 존재한다.

기공학의 이러한 학문적 발전의 흐름을 좀 더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2008년 Han은 한국저널에 게재된 기공관련 연구 동향(『2008년 Han의 논문』)<sup>26)</sup>을 발표하였다. 이후에 계속적으로 Han은 같은 맥락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기공관련 다양한 연구 단체와 연구자들이 2016년 현재까지도 이러한 연구동향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29).

Table 29. The List of System review Studies of *Qigong*.

No	title	저자	공저자 /지도교수	학위	발행지	발행 년월	page
1	한국 저널에 게재된 기공관련 임상 연구 동향 분석	한창현	이상남, 권영규, 안상우, 최선미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제21권 제3호	2008. 08.25	pp.297-306
	Research clinical trends on Gigong(氣功, <i>Qigong</i> ) in the Korean Journal						
2	한국저널에 게재된 기공 관련 단일군 임상연구 동향 분석	박선희	한창현, 김기진, 신미숙, 최선미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제14권 제2호 통권 제23호	2008. 08.30	pp.75-80
	Research Trends on <i>Qigong</i> in the Korean Journal						
3	한국저널에 게재된 기공 관련 연구 동향 분석	한창현	이상남 권영규 최선미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22권 제4호	2008. 08.31	pp.954-959
4	국내 기공 임상논문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한창현	안상우, 박지하	박사		2009. 2	p.96
5	국내 기공 관련 무작위 임상 연구에 대한 현황 검토	한창현	이상남, 박지하, 안상우		경각령혈학회지 제26권 제1호	2009. 03.27	pp.27-40
	Systematic review on the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s of <i>Qigong</i> in the Korean Journals						
6	한국 저널에 게재된 기공 관련 대조군 임상 연구 현황 분석	한창현	권영규 이상남 박지하 안상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23권	2009. 04.30	pp.319-324

25) 최은경, 박승정, 이기남. 韓國 氣功 團體의 現況. J.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2002;6(1):1-19. pp.17-18.

26) Chang Hyun Han, op. cit.

	Research Trends on the Clinical Studies of <i>Qigong</i> in the Korean Journal				제2호		
7	명상 관련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박성현			한국명상학회지 Vol.1 No.1	2010	pp.133-138
8	국내 저널에 게재된 마음챙김 명상관련 연구 동향 분석 Research Trends on Mindfulness Meditation in Korea	양영필	한창현, 박지하, 이상남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제23권 제1호 통권48호	2010.01.25	pp.81-89
9	국내 마음챙김 명상의 임상논문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A Systematic Review of the Mindfulness Meditation Clinical Trials in Korea	양영필	박지하	박사	대구의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02	p.95
10	생체에너지 기술 동향	전자자료사			반도체·FPD. 통권 제266호	2010.06.05	pp.45-54
11	마음챙김 명상 관련 국내 임상 연구 동향 분석	양영필	송익수, 문진석, 한창현, 박지하, 이상남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제16권 제2호	2010.08.31	pp.57-64
12	마음챙김 명상의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	김잔디	김정호		사회과학연구 제16권	2011.02.21	pp.143-174
13	한방운동요법에 대한 문헌적고찰 : 導引, 氣功, 推拿, 冥想 등과 관련된 논문을 중심으로 The literature review on exercise therapy of Oriental Medicine : Focus on the theses related to Doin, <i>Qigong</i> , Chuna, Meditation, etc.	국길호	윤일지	석사	대전대학교 대학원,대전	2011.02	252
14	국내 만트라명상의 임상논문에 대한 체계적 고찰 A Systematic Review of Mantra Meditation Clinical Trials in Korea	이미선	문경래	석사		2011.08	p.58
15	불교적 명상수행에 대한 뇌과학의 연구 동향	우성일			불교와심리 논문집 제4호	2011.12.31	pp.12-31
16	外氣發功을 中心으로 한 國內 氣功療法 團體 現況 分析 Analysis of Current Status of <i>Qigong</i> Therapy Organizations focusing on External <i>Qigong</i> Therapy	윤희영	이상남	석사		2012.02	p.49
17	국내 보완대체의학 사용 실태조사 연구의 동향 분석 Research Trend Analysis of the Prevalenc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Korea	김슬기	이상훈, 서현주, 백승민, 최선미		大韓韓醫學會誌 제33권 제1호 통권 제96호	2012.03.30	pp.24-41
18	국내 명상의 실태 조사 : 웹 사이트를 중심으로 A Study on actual condition of meditation: Focused on the Internet web-site	정유창	김범준	석사		2012.08	p.64
19	한의학 분야에서의 양생 연구 동향 분석 Literature Review about Yangseng(養生) studies in Korean Oriental Medicine	한창현	권오민, 박황진, 이봉효, 이영준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제18권 제2호 통권 제35호	2012.08.31	pp.39-45
20	養生과 웰빙(Well-being)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 about Yangseng(養生) and Well-being Studies in	박황진	이상남, 한창현	박사		2013.02	174

	Korea						
21	양생 관련 국내 연구 현황 및 설문도구 분석 Analysis of Research Trend about Yangseng - Focusing on Measuring Instrument	박황진	이상남, 이봉효, 최성훈, 한창현	동의생리병리학 회지 제27권 제1호	2013. 03.01	pp.11-19	
22	명상 프로그램 관련 국내 연구 논문 경향 분석	이필원	박성식	한국선학 제35호	2013. 08.30	pp.117-143	
23	명상과 뇌관련 연구 동향 분석	김병수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4호 2호 통권36	2013. 08.31	pp.249-280	
24	불교명상과 현대 심리치료의 통합 연구 동향	차효록		불교와심리 논문집 제6호	2013. 12.31	pp.271-371	
25	명상 프로그램 중재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 A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Meditation Program Intervention	류현민	정광조	박사	2014. 02	p.198	
26	명상유형에 따른 중재 효과 메타분석:요가명상, 불교명상, 마음챙김명상, 복합적명상을 중심으로	류현민	정광조	예술심리치료연구 제10권 제3호 통권28호	2014. 09.30	pp.1-17	
27	관절통증에 대한 외기방사 기공요법의 체계적 문헌 고찰	이현엽	황만석, 허인, 신병철, 허광호, 황의형	한방재활의학과 학회지 vol.24 no.4 통권70호)	2014. 10.31	pp.187-193	
28	유아명상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및 향후 연구 방향 모색	이영림		한국불교학 제74집	2015. 06.30	pp.381-411	
29	국내 태극권 임상논문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A Systematic Review of Clinical Studies for Tai Chi in Korea	이동욱		박사	2015. 08	p.135	
30	마음챙김 활용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김경은	김진숙	청소년상담연구 제23권 제2호	2015. 11.30	pp.135-155	
31	기공운동의 과학화를 위한 연구 동향 분석 Analysis of research trends for the scientification of Qigong exercise	이지관	이재범	석사	2016. 02	p.47	
32	마음챙김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Mindfulness Program Intervention	최주영	고형일	석사	2016. 02	p.86	
33	양생 관련 국내 간호 연구 동향 분석 A Trend Analysis of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related with Yangseng	김윤영	박혜주 장은수	동서간호학연구지 제22권 1호	2016. 05.31	pp.10-16	

『2008년 Han의 논문』에서 2007년까지의 기공관련 논문을 분석하여 연도별로 살펴보니,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다가 2000년도부터 하향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90년도에 불기 시작한 기열풍의 여파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거품이 빠진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법륜공 사태 영향으로 국내의 기공 단체 및 수련도 다소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것 때문에 기공 관련 연구도 점점 위축되고,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

측된다.

그러나 한국 기공은 앞서서도 밝혔듯이 중국기공과는 달리, 문화혁명이나 법륜공 사태 같은 시련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거품이 빠지면서 자유분방하고, 자발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해 좀 더 탄탄하고 내실있는 학문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과연 2008년 이후 한국기공은 어떠한 연구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 8년이 지난 2016년의 시점에서 기공학 발전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2008년 이후에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들 중 기공관련 논문들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초 논문을 계획, 구성할 때는 『2008년 Han의 논문』의 보고와 같은 선상에서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시기적인 차이를 단순비교 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기공관련 논문을 검색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2008년 Han의 논문』은 기공의 범주를 어디까지 잡고, 기공 관련성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가 명확치가 않아 이로 인해 양적 분석에 대한 큰 차이를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기공관련 논문의 선정에 앞서, 기공관련 논문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새롭게 마련한 논문 선정 기준은 기공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기공의 범주에 기철학과 명상을 포함시켰다. ‘기철학’은 氣와 관련된 철학적, 역사적, 예술적 연구들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였으며, 본래 ‘명상’은 불교의 참선에서 기원한다고 볼 수 있어 그 기원이 유사하고, 심신단련법이라는 본의의 맥락에서 기공의 포괄적 개념과 그 의미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 포함하게 되었다.

하지만 요가와 기독교, 가톨릭 등의 종교 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심신단련법은 그 의미는 같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기원이 크게 다르고 氣에 대한 관념과 개념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공의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궁도 등의 현대 무술은 비록 그 기원이 기공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미 육체적 단련법에 초점이 맞춰진 현대적 의미의 스포츠로서 개념이 정립되었기에 기공 관련 연구 논문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요가와 현대의 무술 등을 기공의 범주로 포함시킬 경우 지나치게 광범위한 범위 설정으로 기공에 특화된 연구의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통계적인 오류 내지는 착오를 초래할 여지가 많아 제외시켰다.

하지만 요가의 경우 기공의 개념과 매우 유사한 심신단련법으로 향후 상호 유사성, 연관성 등의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기공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공의 한 범주로 포함할 수 있을 지의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2. 기공학 연구의 동향

본 논문에서 마련한 기공관련 논문 선정의 기준에 따라 2008년 이후 기공학 관련 연구를 조사해 본 결과, 한창현의 보고에서 2008년 이전 기공학 관련 연구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연도별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고, 꾸준히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Han의 논문』의 경우 기공관련 연구에 대한 기준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였던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반적인 기공학 연구의 경향성과 동향을 보기 위한 것으로 질적조사가 아닌 양적 조사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공의 개념과 범주를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조사하는 것이 기공학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공학 연구는 2008년 이후에 큰 등락 없이 꾸준히 연구되고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기공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2008년 Han의 논문』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Han의 논문』에서는 기공 관련 연구가 1998부터 2002년까지 최고점을 이루다가 그 이후 급감하면서 점점 하향하는 추세였다(Fig. 2).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2008년 Han의 논문』과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08년 Han의 논문』에서 기공관련 연구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상’ 분야 연구와 ‘기철학’ 분야의 연구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큰 차이 없이 꾸준히 연구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다소 증가하기도 하였고, 2015년에선 상대적으로 감소한 편이었지만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계속 조금씩 증가 추세였기에 하향 추세 또는 상향 추세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다. 이로 볼 때 한국의 기공학 연구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연구 보고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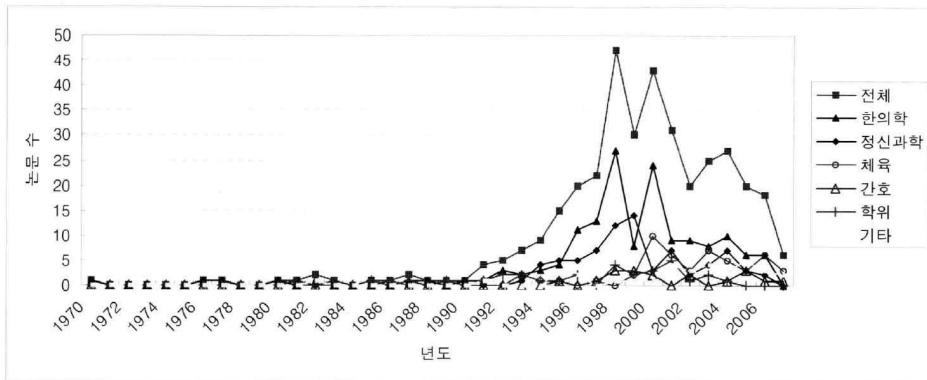


Fig. 2. A year of study for *Qigong* before 2008 in Han's Study – Before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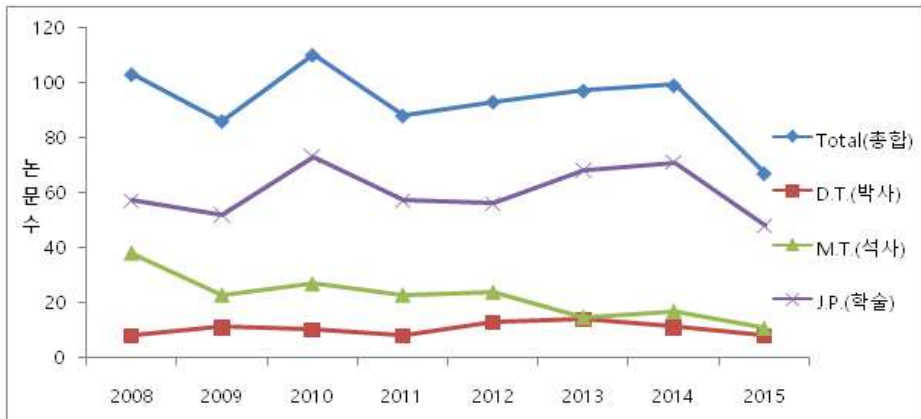


Fig. 3. Number of *Qigong*-related Studies per Year excluding meditation, Philosophy on Qi(氣) – Since 2008.

둘째, 기공학 관련 연구로 선정된 연구들을 각 연구 주제별로 분석하여 『2008년 Han의 논문』과 비교하여 보면 『2008년 Han의 논문』에서는 연구 분야를 한의학, 정신과학, 체육학, 간호학, 학위논문으로 구분했으나 연구 주제별 분류의 체계가 일관되지 않고, 공인된 분류 체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KCI의 연구 주제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였다. 또한 『2008년 Han의 논문』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위와 마찬가지로 명상 분야와 기철학 분야를 제외시키고 비교 분석하였는데, 『2008년 Han의 논문』에서는 한의학 분야의 논문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나(Fig. 4), 본 논문에서 조사한 2008년 이후의 기공관련 논문에서는 인문학 분야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약학 분야가 많았다(Fig. 5). 『2008년 Han의 논문』에서의 한의학 분야와 간호학 분야는 KCI의 분류체계상 의약학 분야에 속하므로 의약학 분야의 논문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2008년 이전과 비슷한 양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인문학 분야의 연구가 더 많은 수를 차지한 점은 매우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분류체계가 다른 두 연구를 상호비교 하였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착오일 수 있으므로 좀 더 합리적인 비교를 위해 KCI의 분류체계에서 한 단계 하위 분류체계로 조사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중 인문학 분야에서는 철학/종교학, 의약학 분야에서는 한의학/간호학,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교육학,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체육학, 복합학 분야에서는 뇌과학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만 추출해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한의학 분야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경향성은 비슷하였으나, 체육학 분야가 한의학 분야와 거의 비슷하게 보고되었고, 다음으로 철학 분야와 종교학 분야의 연구가 많이 보고 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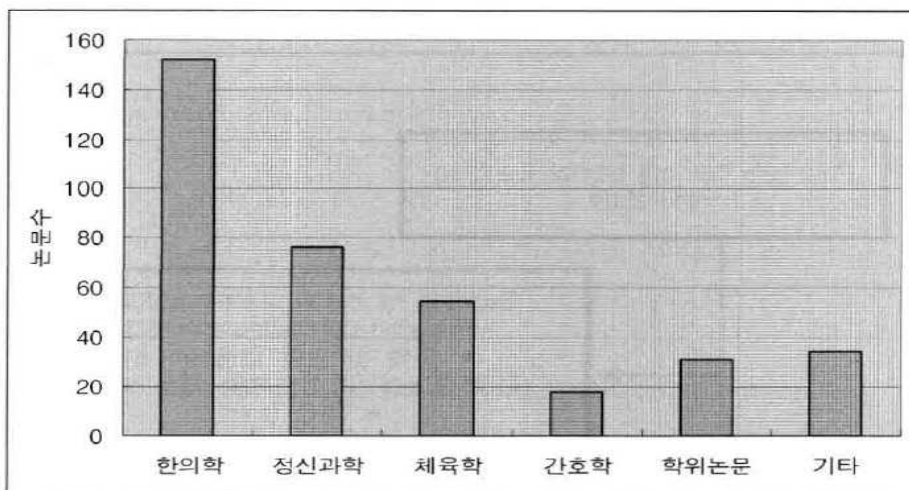


Fig. 4. A category of study for *Qigong* in 『2008 Han's Study』 – Before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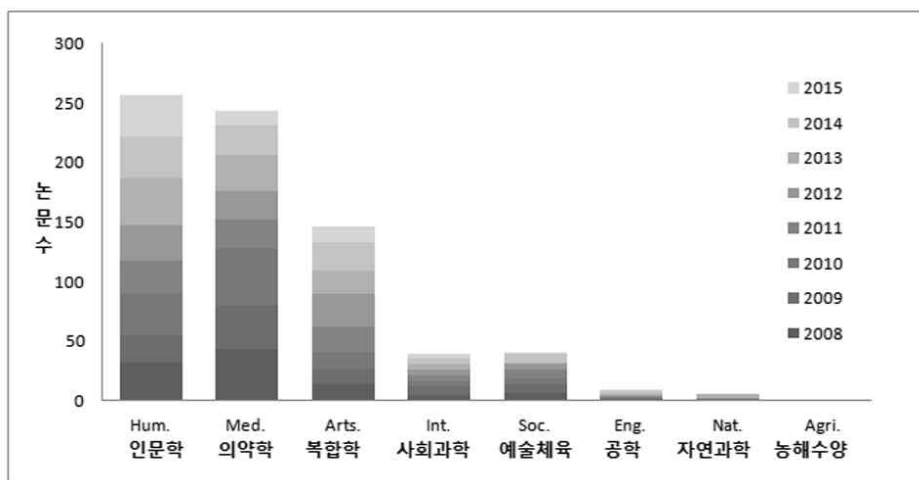


Fig. 5. Number of *Qigong*-related Studies per Main Subject Categories by year excluding Meditation, Philosophy on Qi(氣) – Since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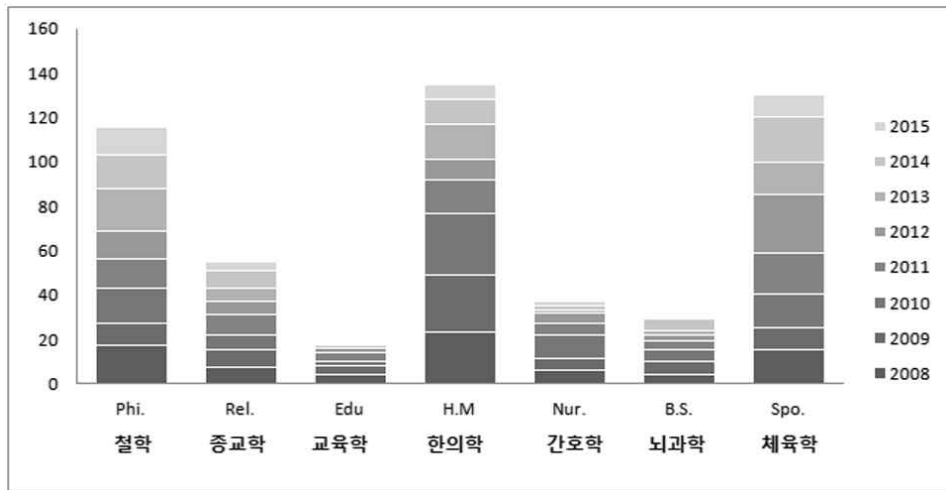


Fig. 6. Number of Some Part of *Qigong*-related Studies per Middle Subject Categories by year excluding Meditation, Philosophy on Qi(氣) – Since 2008.

체육학 분야 연구가 많이 증가한 요인은 2000년대 이후부터 유행한 웰빙의 붐 등으로 운동요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륜공 사태 이후 중국 정부가 직접 중국 기공을 관리하면서 건신기공이라는 명칭하에 도인법 위주의 기공 공법 보급에 주력하게 되자, 한국 기공 역시 이 영향 하에 운동요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도인법과 태극권 등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발표되었고, 이를 주도하는 연구자들이 자연스럽게 체육학 전공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또한 2005년 대한의료기공학회의 주도로 한방물리요법 중 운동요법의 하나로 ‘공법지도요법’이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었는데<sup>27)</sup>, 이는 기공학이 제도권 내로 진입하는 첫 사례로써 기공학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이후에 치료 요법으로써 가치를 인정받아 한의계 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학 계열에서 도인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더불어 체육계에도 자극제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기공의 연구 분야에 대해서 분석해보았는데, 『2008년 Han의 논문』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 이 논문의 학위논문편에 해당하는 한<sup>28)</sup>의 논문에서 보고한 내용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기공의 연구 분야를 기공의 5대 범주에 근거하여 9개의 분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분류하였고, 여러 분야가 혼합된 연구도 있어서 이를 중복 처리하였고, 『2008년 Han의 논문』에서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철학 분야와,

27)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03호, 2004.12.31) 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5-14호, 2005.2.22)).

28) Chang-hyun Han. Research trends on *Qigong* in the Korean Journal. Doctorial Thesis. Daegu Haany University. Daegu:Korea. 2009:96. p.19.



명상 분야 연구를 모두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Han의 연구에서는 ‘단전호흡’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태극권’, ‘외기발공’의 순이라고 보고하였다(Fig. 7).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명상’ 관련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기철학’ 분야가 다음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양생’ 분야가 많았으며, Han의 연구에서 가장 많았던 ‘단전호흡’과 ‘뇌호흡’에 해당하는 ‘내단’ 분야는 오히려 ‘태극권’, ‘기공체조’에 해당하는 ‘도인’ 분야보다 적었다(Fig. 8).

『2008년 Han의 논문』과 본 논문의 기공관련 논문 선정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있으나 명상 분야와 기철학 분야를 제외하고 기공 분야별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분석하면, 2008년 이후에는 외기발공에 대한 연구와 기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기과학에 대한 연구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단전호흡, 명상, 태극권, 도인법 등에 관한 연구는 매년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증가세나 하향세의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Fig. 9).

이는 1990년대에서 2000년 초반까지는 기공의 열풍 속에 ‘氣’ 또는 기공 수련의 신비적 요소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학문적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후에는 웰빙, 건강, 양생, 장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의 증가로 기공의 현실적 또는 상업적 활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학문 분위기의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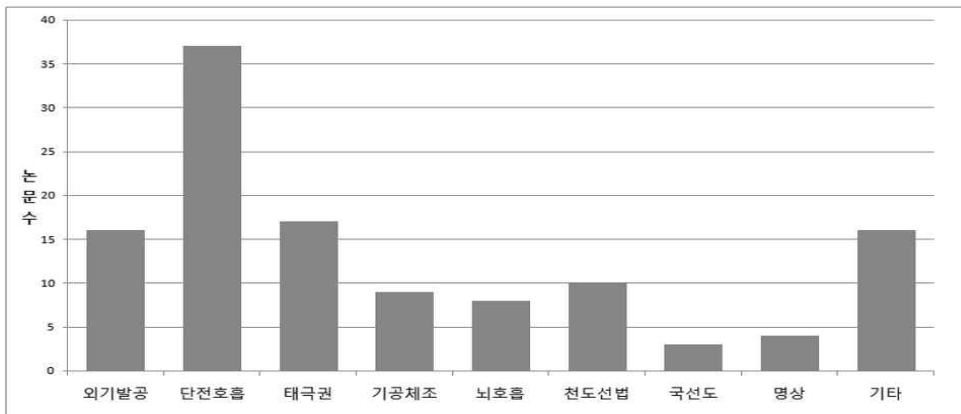


Fig. 7. Number of control studies according to training methods in Han's Doctorial Thesis(2009)- before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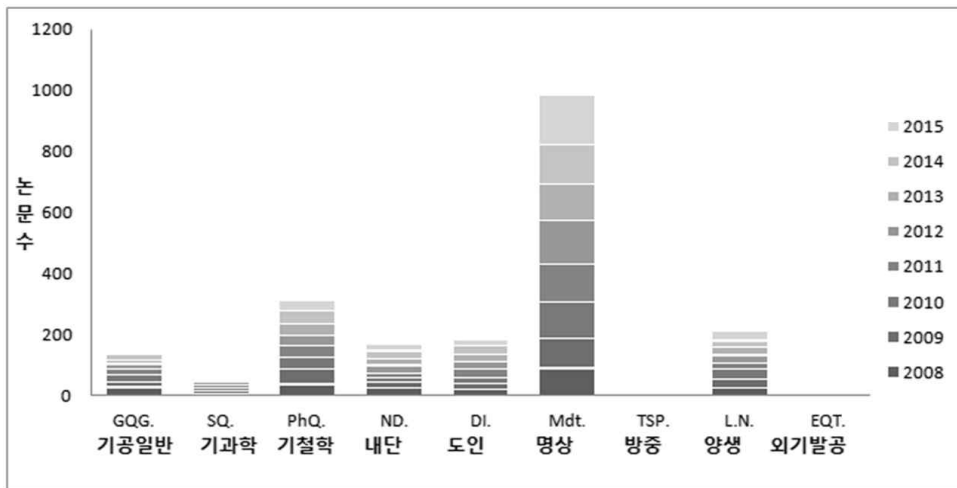


Fig. 8. Number of *Qigong*-related Studies per *Qigong* Categories - since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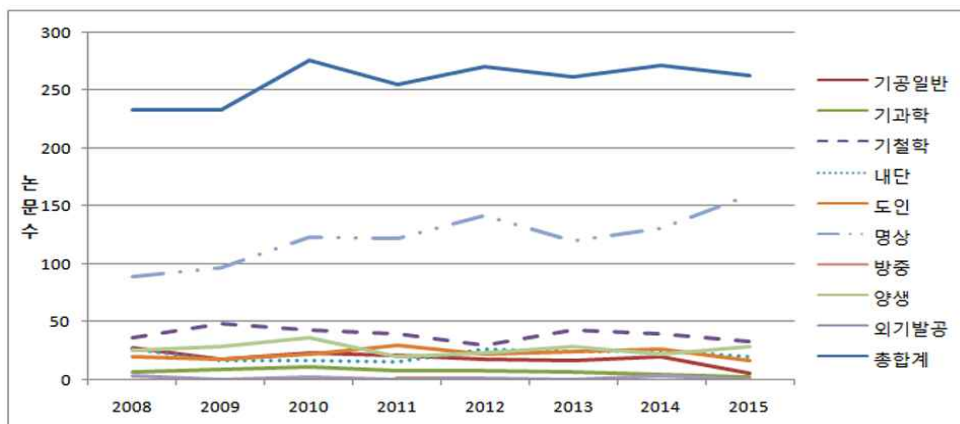


Fig. 9. Number of *Qigong*-related Studies per *Qigong* Categories by Year - since 2008.

넷째, 기공 관련 연구들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분석해보았는데, 역시 『2008년 Han의 논문』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 Han의 박사 논문<sup>29)</sup>에서 보고한 내용과 비교 분석해 보았는데, Han의 논문에서는 문헌연구, 임상연구, 동물 및 실험연구의 3가지 방법으로 분류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Thomas & Nelson(1996)이 제시한 연구유형으로 기술연구, 분석연구, 실험연구, 질적연구의 4가지 방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비교해보면 Han의 박사 논문에서는 연구방법 중 문헌논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는데(Fig. 10), 본 논문에서는 분석연구가 전체 53%를 차지해 과반수가

29) Ibid., p.14.

넘게 가장 많이 사용한 연구방법이었다(Fig. 11). 또한, 기공 분야별로 보면, ‘명상’ 분야는 설문지법, 면접법을 많이 사용하는 기술연구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고, ‘기철학’, ‘내단’, ‘양생’ 분야는 분석연구 방법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Fig. 12). 2008년 이전엔 실험연구의 비율이 전체의 11.48%를 차지한데 비해, 2008년 이후에는 5.5%를 차지해 실험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였지만, ‘명상’과 ‘기철학’분야를 제외하면 11.77%를 차지해 2008년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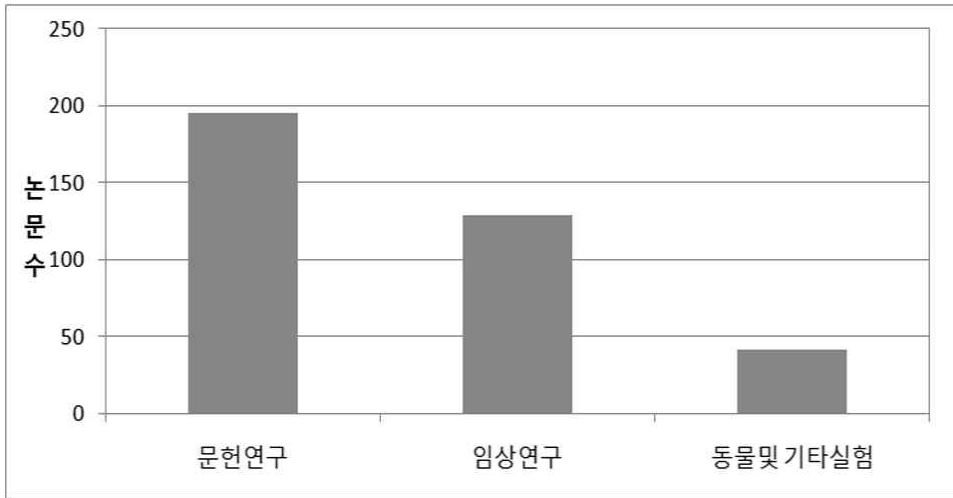


Fig. 10. Number of studies for methods in Han's Doctorial Thesis(2009) – before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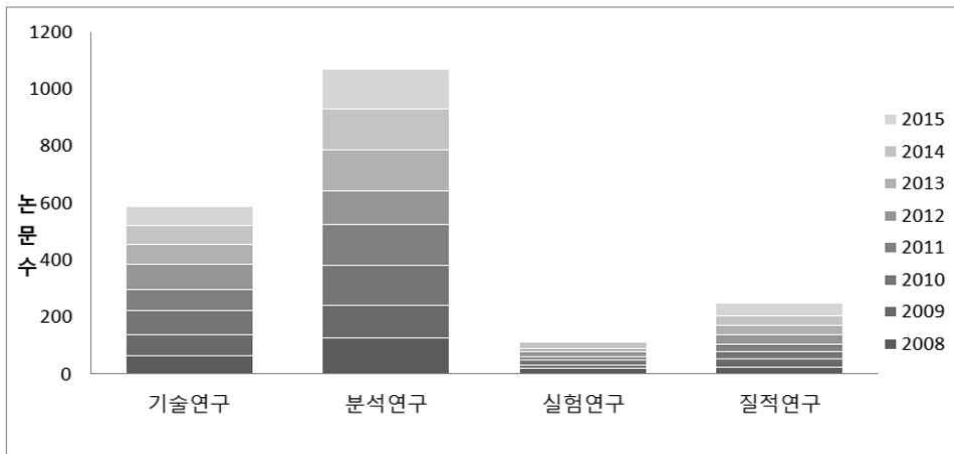


Fig. 11. Number of Qigong-related Studies per Research Method by Year – Since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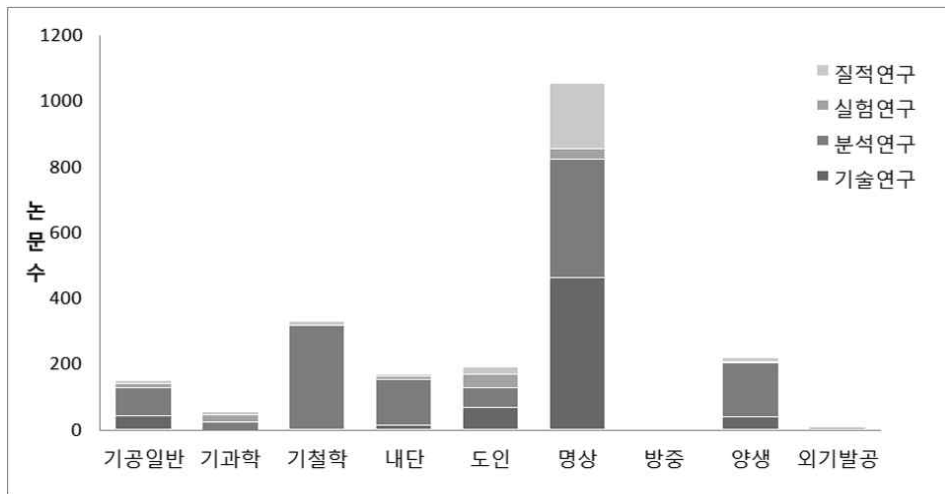


Fig. 12. Number of *Qigong*-related Studies per Research Method by *Qigong* Categories - Since 2008.

질적연구 방법은 '명상' 분야가 74.62%, '도인' 분야가 7.83%를 차지해 질적연구 방법의 대부분은 '명상' 분야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 방법에 대한 비교는 『2008년 Han의 논문』과 비교할 수 없어 Lee<sup>30)</sup>가 발표한 논문과 비교해 보면, Lee의 논문에서는 질적연구는 2003년부터 처음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전체 약3.6%의 적은 수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본 논문에서는 12.3%를 차지해 큰 차를 보였지만 '명상' 분야와 '기철학' 분야를 제외하면 7.18%로 나타나 Lee의 논문과 마찬가지로 기공관련 연구에서는 질적연구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로 살펴봐도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크게 늘거나 줄지 않고, 연평균 31건으로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질적연구 방법이 타 연구 방법에 비해 최근에 개발된 방법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며, 향후 이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점차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한편, 연구 주제 중 공학, 복합학, 예술체육, 의약학, 인문학 분야는 분석연구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는 기술연구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특히 인문학 분야는 82.73%가 분석연구 방법이어서 기공 관련 인문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분석연구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의약학 분야 연구자들은 기술연구 38.84%, 분석연구 40.35%로 비슷하게 나와 비교적 다양한 연구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공 관련 연구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본 논문에서는 『2008년 Han의 논

30) Lee Ji-Kwan. op. cit., pp.34-35.

문』과 달리 교신저자를 파악하지 않고 학술 논문은 주저자와 공동저자로, 학위논문은 주저자와 지도교수로 조사 분석 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를 한 이유는 교신저자의 경우,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공동저자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 연구자가 교신저자라고 추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교신저자를 조사하지 않고, 공동저자와 지도교수로 조사하여 연구자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공관련 연구로 선정된 논문의 주저자로 5편 이상 연구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는 총38명이었고, 이 중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주저자는 정우진으로 2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정경희가 12건, 김지선이 11건, 이승호가 10건, 석봉래가 9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저자 또는 지도교수를 분석해 보았을 때는 총 5편 이상 연구 논문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하거나 학위논문을 지도한 연구자는 총47명이었고, 이 중 가장 많은 논문에 참여하거나 지도한 연구자는 김병채로 35건이었다. 이어서 김낙필이 26건, 이상남이 23건, 김미리혜가 19건, 김정호가 16건, 한창현 15건, 박지하 15건, 김현문 14건, 허일웅 14건, 정경희 13건 등이었다. 주저자, 공동저자, 지도교수를 모두 종합해서 분석해 보았을 때는 김병채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낙필이 30건, 이상남이 26건, 정경희가 25건, 정우진이 24건, 한창현이 21건, 김미리혜가 2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종합해서 분석하였을 때 연구 논문수가 많은 상위 16명의 간략한 이력을 한국연구자정보(Korean Resercher Information)<sup>31)</sup>에서 조사해 아래의 표에 정리해보았다.

---

31) <https://www.kri.go.kr>

Table 30. Top 16<sup>th</sup> List of Author.

R	Author	Studies*	belong	a major field of study	degree
1	김병채	0/0/35	창원대학교 (퇴직)	상담심리/ 심리치료	부산대학교 박사(93)/교육학
2	김낙필	4/0/30	원광대학교 (재직)	한국도가철학	서울대학교 박사(93)/한국도가철학
3	이상남	3/18/5	대구한의대학교 (재직)	예방한의학/ 기공학	대구한의대학교 박사(08)/한의학
4	정경희	12/0/13	국제뇌교육종합 대학원대학교 (재직)	비교사(역사학) 동아시아 비교문화	서울대학교 박사(00)/조선전기사
5	정우진	24/0/0	경희대학교 (퇴직)	중국철학 한의철학	경희대학교 박사(10)/중국철학
6	한창현	6/14/1	한국한의학연구원 (재직)	예방한의학 한의학방법론	대구한의대학교 박사(09)/기공학
7	김미리혜	1/4/15	덕성여자대학교 (재직)	심리과학 임상심리/심리치료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박사(95)/psychology
8	김형록	7/1/11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재직)	학제간연구 명상치료학	동국대학교 박사(00)/선학
9	김지선	11/7/1	중원대학교	미상	미상
10	김정호	1/6/10	덕성여자대학교 (재직)	건강/재활심리 만성질환관리	고려대학교 박사(89)/심리학
11	허일웅	1/1/13	명지대학교 (퇴직)	무도학 전통체육과/ 양생학	한양대학교 박사(93)/무도학
12	박지하	0/8/7	대구한의대학교 (재직)	본초학 본초독성학 본초기미론	대구한의대학교 박사(04)/한의학
13	김완석	6/1/7	아주대학교 (재직)	건강/재활심리 스트레스,명상기반 개입,심신건강	고려대학교 박사(91)/건강/재활 심리
14	김현문	0/0/14	한서대학교 (재직)	미상	미상
15	송영숙	3/0/10	동국대학교 (미상)	미상	미상
16	권영규	1/9/3	부산대학교 (재직)	한방생리학 장부생리	경희대학교 박사(95)/한의학

\* : Author/Co-Author/Thesis Director

이상에서 보았을 때 김병채는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명상 분야의 전문 연구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낙필은 원광대학교 동양대학원에서 기공학 전 분야에 대해서 폭넓

게 연구하는 기공학 전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남, 한창현, 박지하, 권영규, 최선미 등은 한의학 분야에서 대구한의대학교, 대한동의생리병리학회, 대한한의학원전학회, 한의학연구원 등에서 기공학 관련 다양한 범주의 연구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리혜, 김정호는 덕성여자대학교에서 명상관련 분야를 전문 연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허일웅, 이재범은 명지대학교에서 주로 체육 분야에서, 기공분야 중에선 특히 도인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기공관련 연구를 많이 발표한 학술지를 조사 분석하였는데, 학위논문의 경우는 연구자의 소속 대학을 조사하였다.

기공 관련 연구를 가장 많이 발표한 학술지는 『도교문화연구』로, 총52건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선도문화』가 36건, 『불교와문화』 35건, 『명상치료연구』 31건,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가 30건, 『명상심리상담』 26건, 『한국심리학회지』 25건, 『한국정신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이 23건,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동서철학연구』는 20건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2008년 Han의 논문』에 따르면 2008년 이전에 기공 관련 연구를 10편 이상 발표한 학술지는 『대한의료기공학회지』, 『동의생리병리학회지』, 『한국정신과학회지』, 『한국체육학회지』, 『한국스포츠리서치』, 『한국사회체육학회지』였는데, 본 논문에서 조사된 상위 10위의 학술 저널과는 많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명상과 기철학 분야의 연구가 많이 선정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명상과 기철학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한국정신과학회지』와 『동의생리병리학회지』만이 2008년 이후에도 기공학 연구를 10편 이상씩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공 분야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면, 『도교문화연구』, 『선도문화』는 주로 내단 분야의 연구가 많았고, 『불교문화』, 『명상치료연구』, 『명상심리상담』, 『한국심리학회지』,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는 명상 분야의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한국정신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은 기과학 연구가 분야가 많았으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는 양생 분야의 연구가 많았다.

이상과 같이 기공 관련 연구를 가장 많이 발표한 학술 저널 10개의 간략한 이력을 조사하여 아래의 표에 정리하였다.

Table 26. Top 10<sup>th</sup> List of Journal that published *Qigong*-related Studies

R.	Journal	Publisher	Subject Categories	Foundation Year	Current Issue	KCI registration
1	J. of The Studies of Taoism and Culture 도교문화연구	The Korean Academy Of Taoism And Culture 한국도교문화학회	Religion 종교학	1987	Vol.44	○
2	Korean Sundo Culture Institute 선도문화	kukhak Institute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Philosophy 철학	2006	Vol.21	○
3	Buddhism & culture 불교와문화	The Korean Buddhism Promotion Foundation 대한불교진흥원	Buddhism 불교학	1992	Vol.2016. No.12	×
4	명상치료연구	한국명상치료학회	Psychology 심리과학	2007		×
5	The J. Of Korean Medical Classics 대한한의학회전학회지	Korean Medical Classics 대한한의학회전학회	Herbal Medicine 한의학	1987	제29권 4호	○
6	J.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명상심리상담	한국명상상담학회	Psychology 심리과학	2013		×
7	Korean J. of Psychology 한국심리학회지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한국심리학회	Psychology 심리과학	1968	35권제2호	○
8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JUNGSHIN SCIENCE 한국정신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Korean Society Of Jungshin Science 한국정신과학회	Brain Science 뇌과학	1994	2016권 제10호	×
9	J. of The Korean Society of Oriental Neuropsychiatry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The Korean Society Of Oriental Neuropsychiatry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Herbal Medicine 한의학	1990	제27권 4호	○
10	Studies in Philosophy East-West 동서철학연구	Korean Society For Philosophy East-West 한국동서철학회	Philosophy 철학	1983	2016년 82호	○

기공 관련 가장 많은 학위논문을 발표한 곳은 동국대학교로 75건이었고, 원광대학교가 70건, 창원대학교가 45건, 명지대학교가 31건, 영남대학교가 29건, 성균관대학교가 26건, 덕성여자대학교가 25건,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25건, 대구한의대학교 22건 등으로 나타났다.

동국대학교의 경우는 불교학과에서 명상 관련 연구를 많이 진행하였기 때문에 기공의 분야 중 특히 명상 분야에 특화된 학문 풍토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원광대학교는 명상관련 연구를 제외하면 기철학, 내단 분야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90년대 말엽 동양학대학원에 기공학과가 설치되어 계속적으로 기공학 전문가를 양성 배출하면서 이를 주도하였던 연구자가 김낙필로서 도가철학을 전공자였다는 이력에서



집작 할 수 있듯이 기철학, 내단, 도인 분야에 특화된 학풍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원대학교는 역시 명상 분야에 전문 연구자인 김병채가 중심이 되어 명상 분야의 연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광대학교와 같이 90년대 말엽에 기공학과를 개설한 명지대학교는 체육학 분야의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고, 기공 분야 중 특히 도인 분야의 연구가 많이 발표되어 있는데, 이 역시 무도학 전공자인 허일웅이 중심이 되어 도인에 특화된 학풍을 형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은 단학선원(단월드)의 창시자인 이승헌이 총장으로 재직하였던 곳으로 기공의 분야 중 내단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이러한 영향 하에 내단에 특화된 학풍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대구한의대학교에서는 기공의 전반적인 분야를 고루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한의대학교는 2000년대 초 한의계에서는 유일하게 대학원 과정에 기공학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기공학과 한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한의학이 곧 기의 학문이라 할 정도로 기공과 한의학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학문적 특성에 기인해 기공의 전반적인 분야를 두루 다루는 학풍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2008년 이후 한국에서 발표된 기공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2008년 이후 한국에서 발표된 기공관련 연구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2. 2008년 이후 기공 관련 연구는 인문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표되었지만 기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3. 2008년 이후 기공 관련 연구는 기공학 분야 중 외기발공에 대한 연구와 기과학에 대한 연구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내단, 명상, 도인 등에 관한 연구는 매년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증가세나 하향세의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 VI. 참고 문헌

1. Chang Hyun Han, Sang Nam Lee, Young Kyu Kwon, Sun Mi Choi. Research Trends on *Qigong* in the Korean Journal.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8;22(4):954-959.
2. 李東鉉. 健康氣功. 서울:精神世界社. 1990:348. p.27, 48.
3. 林厚省. 中國氣功. 서울:保健新聞社, 1987. p.20.
4. Kim Woo Ho, Hong Won Sik. A Documentation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hi-Kung-Hak. J.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1996;1:13-64. p.17, pp.21-24, p.56.
5. 陶熊主編. 氣功精選續篇. 北京 :人民體育出版社. 1985. p.354.
6. 이능화, 이종은 역. 朝鮮道教史. 서울:普成文化社. 1992:512. p.10, 207, 440, 452.
7. 朴炳洙. 朝鮮時代의 道教養生思想에 관한 研究. Master' 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Korea. 1992:115. p.6, 61, 62.
8. Lee Ji-Kw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for the Scientification of *Qigong* Exercise.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Korea. 2006:47. p.12, pp.13-15, p.29, pp.34-35.
9. Lee Ji Heon. A study on Influx of do to Korea and its Development Process. Master' 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Korea. 2011:59. p.35.
10. 안영배. 한국 기공단체의 현황분석. 한국기공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원광대학교. 2000.
11. 김정빈. 丹 서울:정신세계사. 1984.
12. 洪泰洙 著. 丹의 實象. 서울:東亞文學社. 1986.
13. 최은경, 박승정, 이기남. 韓國 氣功 團體의 現況. J.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2002;6(1):1-19. pp.17-18.
14. Chang-hyun Han. Research trends on *Qigong* in the Korean Journal. Doctorial Thesis. Daegu Haany University. Daegu:Korea. 2009:96. p.14, 19.